

임란 이후 영남 지식인의 사상적 동향과 감성의 유형

정 우 락*

- | |
|--------------------|
| I. 문제의 제기 |
| II. 전란의 충격과 영남 사상사 |
| III. 감성의 네 가지 유형 |
| 1. 분류 기준 |
| 2. 도화 감성 |
| 3. 낭만 감성 |
| 4. 생활 감성 |
| 5. 사회 감성 |
| IV. 요약과 남은 문제들 |

국문초록

본고는 문학사상사적 흐름을 인식하면서, 임란 이후 영남 지식인의 사상적 동향과 문학창작의 근거가 되는 감성과 그 유형을 먼저 살피고, 감성 유형에 따른 작품의 실재를 두루 논의한 것이다. 이로써 흔히 작가를 둘러싸고 있는 ‘역사적 상황’과 이에 대한 작가의 ‘문학적 반응’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동시에 임란 이후의 사상사와 문학사가 맞물리는 지점에서 조선후기의 문학사적 흐름을 새롭게 이해하고자 했다.

*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jwl0412@knu.ac.kr

문학은 사물에 대한 감응과 그 형상을 의미한다. 자아와 사물의 교응 관계를 기준으로 할 때, 감성은 ‘이상’과 ‘현실’, ‘이념’과 ‘실제’라는 두 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상과 이념이 우세한 도학 감성, 이상과 실재가 우세한 낭만 감성, 실재와 현실이 우세한 생활 감성, 이념과 현실이 우세한 사회 감성이라는 네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었다. 이러한 감성의 유형들이 전형성을 확보하기도 하나, 고정되어 불변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전란의 와중에 낭만 감성과 생활 감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도학 감성과 사회 감성이 더욱 강화된다. 그러나 영남의 경우, 남명학파의 거점인 江右지역의 춘추대의정신과 사회 감성, 퇴계학파의 거점인 江左지역의 주리적 전통과 도학 감성, 한강학파의 거점인 江岸지역의 실용주의적 성향과 생활 감성은 서로 친연성을 갖는다. 낭만 감성은 인간이 지닌 보편 정서로 고유한 자기 영역을 확보하면서도, 도학과 사회, 그리고 생활 감성과 무관하게 작품으로 형상화되었다.

◆ 주제어

임진왜란, 영남, 감성 유형, 도학 감성, 낭만 감성, 생활 감성, 사회 감성, 춘추대의 정신, 주리적 전통, 실용주의

I. 문제의 제기

우리는 흔히 작가를 둘러싸고 있는 ‘역사적 상황’과 이에 대한 작가의 ‘문학적 반응’¹⁾이 일치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당혹스러워 한다. 어떤 경우는 이를 현실인식의 불철저성으로 낙인찍고 그 작가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그러나 투철한 현실인식이 모든 작품에서 구현되는 것은 아니다. 그들에게도 완충과 충전을 위한 휴식과 일상적인 ‘생활’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유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며 치열하게 싸웠던 사대부 작가들 가운데 당대의 역사적 현실과 전혀 상관없는 것을 다량 작품화하기도 한다. 그렇다고 하여 그가 현실을 외면한 것은 물론 아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사실에 입각하여 우리의 일상적 생활과 특수한 경험 사이에 서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특수한 경험은 전란이 대표적이다. 이 가운데 임진왜란은 조선을 전후기로 나눌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사건이다. 조선의 민중 사이에서는 일본에 대한 적개심과 함께 양반 계층의 무능에 대한 비판정신이 일어났으며, 사대부 계층에서도 스스로를 학문적으로 반성하며 실학을 발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것은 나라 사랑에 기반을 둔 민족의식을 성립시키는 중요한 동인이 되었다. 다른 한편에서는 임진왜란을 맞아 원군을 보내 조선을 도와준 명나라의 ‘再造之恩’에 입각하여 慕華思想이 강력히 일어났다. 이것은 군사력의 열세를 문화적 우월감으로 극복하려는 하나의 시도였다.

특히 임진왜란은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를 바꾸어 놓은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우리 땅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싸운 결과 일본과 중국에서는 그들의 정권이 무너지고 말았다. 전쟁 이후 침략국 일본에서는 豊臣幕府에서 德川幕府로 교체되었고, 抗倭援朝의 명분으로 전쟁에 참여하였던 명나라는 전쟁 후 국력이 급격하게 쇠락하여 청나라에 의해 멸망당하고

1) ‘역사적 상황’과 ‘문학적 반응’에 대한 문제는 정우락, 「태초 고상안의 현실인식과 그 문학적 대응」, 『동양한문학연구』 45, 동양한문학회, 2016에서 자세하게 다루었다.

말았다. 그러나 조선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기는 하였지만,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서서 이후 300년 동안이나 국가의 생명을 유지하면서 상하층이 교섭하는 역동적인 문화를 새롭게 만들어갔다.

우리는 임진왜란 시기 광해군의 역할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광해군은 선조와 함께 의주로 피난을 가다가 權攝國事の 책임자가 되어 평안도, 강원도, 황해도 등지의 민심을 수습하고, 왜군에 대항할 군사를 모으는 등 적극적인 분조 활동을 벌였다. 서울을 수복한 후에는 수도방위에 힘썼고, 정유재란이 발발하자 전라도와 경상도로 내려가 군무를 보면서 백성들의 안위를 살폈다. 이러한 공으로 그는 대북파의 지지를 받아 1608년 왕위에 올랐다. 그러나 廢母殺弟라는 綱常과 관련된 문제를 일으키며 서인들의 반발을 샀고, 인조반정(1623)에 의해 광해군은 폐위되고 대북정권도 따라서 몰락하였다.

인조반정과 더불어 광해군 시대의 주요 노선이었던 명칭 간 중립적 외교는 親明排金 정책으로 기울어졌고, 이에 따라 사상계도 성리학적 이념으로 재무장되었다. 인조반정은 그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였다. 친명 배금 정책은 후금의 반감을 일으켰고, 마침내 조선왕조는 정묘호란(1627)으로 형제관계를 맺었으며, 이후 병자호란(1636)이 일어나 인조가 남한산성에서 三跪九叩頭禮의 굴욕적인 항복을 하면서 청나라와 군신 관계를 맺게 되었다. 이러한 치욕적 과정을 거치면서 조선은 반청 세력을 중심으로 大義名分을 더욱 강화하면서도, 사상적으로는 예학과 양명학, 실학과 호락논쟁 등 다양한 경향의 학문이 나타나 조선후기의 사상사적 구도를 더욱 복잡하게 하였다.

우리는 여기서 大明義理論과 北伐論을 주목한다. 이 둘은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전자는 임진왜란을 맞아 우리를 도와준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지키자는 것이고, 후자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 春秋大義에 입각하여 오랑캐인 청나라를 쳐부수자는 것이다. 모두가 명분론에 입각한 것이다. 주자학에 기반을 둔 華夷論的 세계관은 조선 지식인들의 사상 통제로까지 나아갔고, 명나라가 멸망한 이후에는 小中華主義로 발전하였다. 이것은 요순우탕에서 시작되는 도통이 공자와 주자를 거쳐, 명나라

이후에는 그 정통성이 조선에 있다는 것이었다.²⁾ 이러한 생각이 李恒老, 奇正鎭 등 위정척사계열을 낳는 결정적인 바탕이 되었다.

주자학이 승명배척사상의 이면에서 작동하면서 관학으로 경화되어가고 있을 즈음, 새로운 생각들이 한편에서 일어나 때로는 경쟁하고 때로는 협동하면서 조선후기의 사상사를 더욱 풍성하게 했다. 이러한 사상사적 전개와 맞물리면서 문학사는 더욱 활기를 띠었다. 특히 임병양란을 거치면서 중세문학과도 다르고 근대문학과도 다른 독자적인 성격을 지니는 이행기적 현상이 발생하였다. 개인적, 민중적, 민족적 측면에서 자아의 각성을 이룩하면서 전쟁 관련 실기문학이 발달하고, 민중의식 내지 민족의식이 다양한 작품들로 표출되고 있었던 것이다.

한문학의 경우, 정통한문학이 임란 직전에 난숙기를 이루며 중세적 지배 질서를 고착화시켰다면, 이수광과 허균 등의 등장은 이러한 질서에 일정한 충격을 주면서 새 바람을 일으켰다. 고착화는 경화를 의미하는 것이니, 그것에 대한 반작용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구체적으로는 문학적 상상력이 도학적 상상력과 길항 관계를 유지하며 한층 발전해갔다. 이러한 문학사적 구도의 이면에는 문학에 대한 사상적 근거를 주자학에서 찾는 고집스런 노선과 함께 공맹시대의 원시유학으로 돌아가 찾고자 하는 노선이 공존하였다. 이를 훨씬 벗어나 불교나 도교, 혹은 양명학에 관심을 갖는 지식인들도 있었다.

본고는 위와 같은 문학사상사적 흐름을 인식하면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룬다. 첫째, 임란 이후 영남 지식인의 사상적 동향이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영남은 사상사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 이를 약술하여 논의의 기반을 마련하기로 한다. 둘째, 문학창작의 근거가 되는 감성과 그 유형을 넷으로 나누어

2) 도통론은 세조시기 『心經』이 유입되면서 본격화되었고, 주세붕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을 만들고 안향을 향사하면서 <道東歌>를 부르게 한다. 우리는 여기서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도통의식을 구체적으로 읽을 수 있게 된다. 주세붕의 도통의식에 대해서는, 정우락의 「주세붕의 백운동 구상, 아름다움과 강함의 이중주」(『소수서원·병산서원』,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9)에서 다루었다.

살펴, 조선시대 선비들의 문학활동을 범주화한다. 셋째, 분류된 유형에 따라 이를 실제적인 작품에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새롭게 제기한다. 이로써 우리는 임란 이후의 사상사와 문학사가 맞물리는 지점에서 조선후기의 문학사 이해를 위한 일단의 고민을 해결하게 될 것이다.

II. 전란의 충격과 영남 사상사

영남 사림파가 김종직 학단을 중심으로 훈구파와 경쟁 관계를 유지하면서 형성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길재→김숙자→김종직’으로 이어지는 영남지역의 在地的 士類는 고려와 조선의 왕조교체기에 不事 二君의 기치를 내걸었던 절의파로부터 시작한다. 이들은 사화를 거치면서 ‘士林’으로 결집하는 집단성을 보였으며, 주자 성리학을 사상적 근간으로 하며 향촌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즉, 주자의 경전집주와 『家禮』 및 『小學』 교육을 향촌에서 실시하면서 성리학의 실천윤리를 行身의 기본으로 삼았던 것이다.

영남학파는 이황과 조식 시대에 이르러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다. 이기 심성론과 예학을 바탕으로 한 도학을 위주로 하면서, 李珥와 成渾을 영수로 한 기호학파에 대칭되는 학파로서 학연으로는 이황과 조식 학통을 근간으로 삼았다.³⁾ 일찍이 李瀼(星湖, 1681-1763)은, “단군 시대는 원시적이어서 문화가 개척되지 못했고 천백여 년을 지나서 기자가 동쪽 지방에 봉합을 받게 되면서 암흑이 걷혀졌으나, 그것도 한강 이남까지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9백여 년을 지나 三韓 시대에 이르러 이 지역의 경계선이 모두 정해져 삼국의 영토가 정해졌고, 또 천여 년을 지나 우리 왕조가 창건되면서 문화가 바로 열렸다.”⁴⁾라고 하면서, 이황과 조식이

3) 영남사림파와 영남학파의 구분은 이수진, 『영남학파의 형성과 전개』, 일조각, 1995, 327-338쪽을 참조할 수 있다.

4) 李瀼, 『星湖僊說』 권1, 「天地門·東方之文」, “檀君之世, 鴻濛未判, 歷千有餘年, 至箕子

제자를 거느리고 강학을 하고 있을 때를 들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중세 이후에는 退溪가 소백산 밑에서 태어났고, 南冥이 頭流山 동쪽에서 태어났다. 모두 경상도의 땅인데, 북도에서는 仁을 숭상하였고 남도에서는 義를 앞세워 유교의 감화와 기개를 숭상한 것이 넓은 바다와 높은 산과 같게 되었다. 우리의 문명은 여기에서 절정에 달하였다. 나는 두 분의 후대에 출생하였다. 그런대로 도가 아직 땅에 떨어지지 않았으나 지금 이후로는 여울을 내려가는 배와 같이 건잡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다시 몇 겹의 파란과 웅덩이를 거치게 될지 모른다. 후대 사람들은 반드시 나를 보고 일어설 것이다.⁵⁾

위의 글에서 이익은 이황과 조식의 시대에 우리의 문명이 절정에 달했다고 하면서도, 이들이 추구하는 바는 약간 다르다고 했다. 이황의 尙仁과 조식의 主義가 바로 그것이다. 낙동강을 중심으로 경상도의 좌상과 우하가 서로 다르지만, 仁義라는 유가사상의 핵심이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정립되었음을 역설했다. 이황과 조식이 거느린 학단의 정치적 소강도 서로 달랐다. 퇴계학파의 경우 동인에서 남인으로 분당되면서 인조반정 이후에는 서인과 남인이 병존하였다. 이에 비해 남명학파는 동인→북인→대북으로 축소 고립되었고, 인조반정 이후에는 북인 세력이 정치적으로 실각하면서 서인으로부터 혹독한 보복을 당하였다.

이황과 조식은 가학을 연원으로 하고 있지만, 이황이 金安國이나 李賢輔 등 관료형 사림과 학문적 연원이 닿아 있다면, 조식은 鄭汝昌과 金宏弼 등 영남 사림파와 학문적 친연성이 있다. 이황과 조식이 세상을 떠난 지 20년 뒤에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둘의 제자들은 조야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된다. 당시 이황의 제자 류성룡은 영의정에 올라 4도의 도체찰사를 겸하며 군사를 총지휘하였고, 김성일은 경상도초유사로

東封, 天荒始破, 不及於漢水以南, 歷九百餘年, 至三韓, 地紀盡闢, 為三國之幅員, 歷千有餘年, 聖朝建極, 人文始闢.”

- 5) 李滉, 『星湖僊說』 권1, 「天地門·東方之文」, “中世以後, 退溪生於小白之下, 南冥生於頭流之東, 皆嶺南之地, 上道尚仁, 下道主義, 儒化氣節, 如海濶山高. 於是乎, 文明之極矣. 余生兩賢之後, 猶是文未墜地, 自此以後, 如下灘之船, 其勢難住, 不知更有幾重激湍坎窩在也. 後來者, 必將企余而起美.”

임명되어 민심을 안정시키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그리고 객재우와 정인홍 등 조식의 제자들은 의병으로 골기하여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지키는 한편 위기에 봉착한 조선을 구하는 데 있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였다.

지금까지 우리는 낙동강을 기준으로 영남학파를 좌우로 나누어 읽어왔다. 남명학파를 중심으로 한 강우지역과 퇴계학파를 중심으로 한 강좌지역이 그것이다. 이 같은 영남 읽기는 낙동강의 ‘좌’와 ‘상’, ‘하’와 ‘우’가 서로 밀착되면서 변별적 자질을 충분히 드러내는 데 일정한 봉사를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대립적 영남 읽기에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근년에는 낙동강 연안이 갖는 문화적 회통성을 주목한 새로운 시각이 제출되었다. 한강학파를 중심으로 한 강안학파가 대표적이다.⁶⁾ 이렇게 보면, 영남은 낙동강을 중심으로 강좌학파, 강우학파, 강안학파로 삼분된다. 이제 학파를 중심으로 임병양란을 전후한 시기의 사상사적 사정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하자.

먼저, 강우지역의 남명학파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春秋大義精神이다. 조식은 경의사상을 핵심으로 하는 실천유학자였다. 유학이 형이상학과 형이하학을 포괄한다고 볼 때, 조식은 현실적 삶의 조건을 더욱 강조하는 하학에 그의 사상적 기반을 두었다. 두루 알다시피 이황에게 편지하여, “요즘 공부하는 자들을 보건대, 손으로 물 뿌리고 비질하는 절도도 모르면서 입으로는 천리를 담론하여 헛된 이름이나 흠쳐서[盜名] 남들을 속이려[欺人]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남에게서 상처를 입게 되고, 그 피해가 다른 사람에게까지 미치니, 아마도 선생 같은 長老께서 꾸짖어 그만두게 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⁷⁾라 한 것도 모두 이러한 생각에 기반한 것이다. 남명학파의 춘추대의정신은 임란을 거치면서 특

6) 낙동강을 중심으로 영남학파를 삼분한 것은, 정우락의 「江岸學과 高靈 儒學에 대한 試論」(『퇴계학과 유교문화』 43,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08)과 홍원식의 「영남 유학과 ‘낙중학」(『한국학논집』 40,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0) 등에서 이루어졌다.

7) 曹植, 『南冥集』 권4, <與退溪書>, “近見學者, 手不知灑掃之節, 而口談天理, 計欲盜名, 而用以欺人, 反爲人所中傷, 害及他人, 豈先生長老無有以呵止之故耶?”

별히 발출하는데, 이에 대하여 곽재우는 <張浚論>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아, 장준이 군자의 입으로 소인의 말을 하여, 진회가 악비를 죽일 의론을 계발하였으니, 유독 무슨 마음에서였던가. 진회란 자는 군부를 잇은 자이고, 마음이 오랑캐와 한가지였던 자이고, 주화의 의논을 창도하여 송실을 끝내 망하게 한 자이니, 그 죄가 머리카락을 하나하나를 뽑아 가며 주벌하더라도 용서받지 못할 자이다. 장준은 ‘要君’ 2자로 악비를 무함하여 진회가 ‘莫須有’ 3자로 악비를 죽일 마음을 싹틔게 하였으니, 악비를 죽인 자는 진회가 아니고 바로 장준이며, 임금을 잇는 자는 진회가 아니고 바로 장준이며, 宋室을 끝내 망하게 한 자는 진회가 아니고 바로 장준이다. 그러니 그 죄가 어찌 진회보다 아래에 있다고 하겠는가.⁸⁾

춘추대의정신은 명분을 바르게 하고, 시비를 밝히며, 포폄을 정확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곽재우의 경우 장준을 들어 이를 시도하고 있다. 장준은 북송 말, 남송 초의 인물로 愛君憂國之士로 알려져 있지만, 곽재우는 춘추대의에 입각해 그를 엄정하게 분변하고자 했다. 즉, 李綱과 岳飛를 탄핵했기 때문에 세평처럼 그는 忠賢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위의 자료는 바로 악비를 진회가 아니라 장준이 죽였다면서 시비를 밝힌 것이다. 이러한 춘추대의정신은 남명학파에서 꾸준히 나타나 절의정신의 기반이 되었으며, 의병을 일으켜 국난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힘으로 작동하였다.

둘째, 강좌지역의 퇴계학파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主理說이다. 이황은 생멸이 있는 氣의 세계보다 생멸이 없는 理의 세계에 무한한 신뢰를 보냈다. 그가 <陶山十二曲>에서, “靑山은 옛데흐야 萬古에 프르르며, 流水는 옛데흐야 晝夜에 굿디 아니논고, 우리도 그치디 마라 萬古常靑히리라.”⁹⁾라고 했던 것도 청산과 유수의 불변성을 리의 논리에 입각해 강조

8) 郭再祐, 『忘憂集』 권2, <張浚論>, “噫! 浚以君子之口, 發小人之言, 啓秦檜殺飛之意者, 獨何心哉? 彼秦檜者, 忘君父者也, 心與虜一者也, 倡主和議, 卒亡宋室者也, 罪不容於濯髮而誅之者也. 浚誣以要君二字, 萌孽秦檜莫須有之三字, 則殺飛者非檜也, 乃浚也, 忘君父者非檜也, 乃浚也, 卒亡宋室者非檜也, 乃浚也. 其罪豈在於秦檜之下乎!”

9) 李滉, <陶山十二曲> 言學 第5曲.

한 것에 다름 아니다. 이황의 이 같은 생각은 사단을 칠정과 구분하고자 하는 강한 가치 지향성을 보이고, 그의 理氣互發說이 존재론에서의 理動說로 귀결되면서 이상주의적 도덕론을 성립시켰다. 바로 이러한 생각에 근거하여 이황은 노장이나 불교는 물론이고, 象山學과 陽明學을 비정통으로 비판할 수 있었다. 특히 그의 주리론은 기호학과와의 경쟁구도 속에서 영남학적 특징으로 성장하였다.

대체로 이씨[李珥(栗谷, 1536-1584)]는 기가 처음에는 비록 리로부터 발하지만 이미 말하면 기의 動靜云爲는 기틀이 스스로 그러할 뿐이어서 리는 관여함이 없다고 생각하였으니 이는 리가 리 되는 소이는 그 본체가 冲漠無朕하여 만물을 낳는 근본이 되고 그 작용이 사물 사이에서 발하여 두루 미치지 않음이 없음을 결코 알지 못한 것이다.¹⁰⁾

위는 李玄逸(葛庵, 1627-1704)이 제출한 자료의 일부이다. 그는 성리학에 있어 기호학과 대결하면서 퇴계학적 정통론을 확고히 한 영남의 대표적인 학자다. 이황이 리기의 不離性보다 不雜性을 강조한 학설을 계승하여 리가 무위하지만 실제로는 조화의 樞紐이며 만화의 근거가 된다¹¹⁾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위의 자료 역시 이이의 학설을 비판하는 측면에서 리의 운동성을 부정하게 되면 리는 허무공적인 것이 되어 모든 조화의 근원이 될 수 없음을 지적한 것이다. 즉 리가 비록 형상이 없고 소리와 냄새가 없지만 동정을 관통하여 있지 않은 곳이 없다는 것을 보이고자 한 것이다.¹²⁾ 이처럼 이현일은 조선유학의 정통이 이황에게 있다고 보고, 퇴계학의 유일정통주의에 입각해 조선사상사를 이해하고자 했다.

10) 李玄逸, 『葛庵集』 권18, <栗谷李氏論四端七情書辨>, “蓋其意以爲氣之始雖自理發, 及其既發則動靜云爲機自爾也, 而理無與焉, 殊不知理之所以爲理者, 其體冲漠無朕, 而爲生物之本, 其用發於事物之間, 而無所不周也.”

11) 이에 대해서는 박홍식의 「이현일의 인물과 학문 사상」(동방학회 편, 『영남학과의 연구』 경상북도, 1998)에서 다루었다.

12) 안유경, 「갈암 이현일의 성리학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59쪽 참조.

셋째, 강안지역의 한강학파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실용주의적 학문태도이다. 정구는 20대 초반에 이황과 조식의 학문을 만나면서 당대적 상황에 적용이 용이한 독창적인 학문정신을 전개하였다. 『心經發揮』로 대표되는 심학, 『五先生禮說分流』로 대표되는 예학, 『昌山誌』 등으로 대표되는 인문지리학이 바로 그것이다. 특히 정구의 예학은 기호지역의 金長生(沙溪, 1548-1631)과 경쟁하면서 영남 예학을 구축하게 되었다. 고려훈의 의례를 더욱 중시하면서 임진왜란 이후 해이해진 사회 공동체를 예학으로 바로잡고자 했다. 정구의 제자 張顯光(旅軒, 1554-1637)은 스승의 『오선생예설분류』에 대한 발문에서 이렇게 썼다.

寒岡先生은 우리나라에 늦게 태어나 禮學에 유념한 지 여러 해였다. 비로소 마침내 여러 예서들을 모으고 분류하여 한 책을 만들고 이름하기를 『五先生禮說』이라 하였으니, 이로부터 天理의 節文과 人事의 儀則이 서로 갖추어지고 상호 보완되었으며, 融會하고 貫通하여 현혹된 것이 밝혀지고, 의심스러운 것이 정해지고, 다투던 것이 종식되었다. 그 斯文에 공이 있음을 어찌 보통으로 말할 수 있겠는가. 다만 생각하건대, 知에 지나친 지혜로운 자와 行에 지나친 어진 자는 혹 이 예를 繁文縟禮라 하여 소홀히 하고, 이에 미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와 불초한 자는 항상 이 예를 너무 높고 예[古]스럽다 하여 숭상하지 않는다. 우리들이 이 두 가지 병통에 걸리지 않는다면 마땅히 다섯 선생이 분명히 가르쳐 주심과 우리 한강 선생이 여러 가지를 모은 공을 알게 되어 이 책이 반드시 百世에 소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¹³⁾

이 글에서 장현광은 정구가 예학에 쏟은 공력을 칭송하면서 아울러 그가 찬술한 『오선생예설분류』가 백세토록 중시될 것이라 하였다. 예학은 정구의 제자이자 류성룡의 제자이기도 한 강안지역 출신인 상주의 鄭經世(愚伏, 1563-1633)에 의해 계승되었다. 그는 『思問錄』과 『養正篇』 등

13) 張顯光, 『旅軒集』 권10, <五先生禮說跋>, “寒岡先生晚出吾東, 留心禮學, 積有年紀, 始遂哀聚類從而爲一帙, 目之曰五先生禮說, 蓋自是天理節文, 人事儀則, 互備相翼, 融貫會通, 而眩者明, 疑者定, 爭者熄矣. 其有功於斯文, 豈可以尋常道哉! 第念智者之過於知, 賢者之過於行, 則或以此禮爲繁縟而是忽焉, 愚不肖之不及者, 則常以此禮爲高古而莫之尙焉. 爲吾徒者, 能不爲二病之所崇, 則當知五先生指掌之賜, 吾寒岡會集之功焉, 而是書必見重於百世也.”

을 편찬하면서 영남의 예설을 정리하였다. 이 때문에 김장생은 정경세를 들어, “예학에 해박하여 퇴계에도 부끄러울 것이 없으니, 오늘날 함께 예학을 논할 만한 사람은 오직 이 한 사람뿐”¹⁴⁾이라 할 수 있었다. 정경세와 정구는 이 같은 실용주의적 태도를 가졌으므로, 지역사회에 醫局을 설립하여 전쟁 뒤 질병에 시달리는 지역민을 구하고자 했다. 1599년(선조 32) 정경세가 상주에 세운 전국 최초의 사설의료기관인 存愛院¹⁵⁾과 1611년(현종 2) 정구가 성주 읍성 서문 밖에 설치한 星州醫局¹⁶⁾이 대표적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전란 후 영남지역에는 춘추대의정신, 주리설, 실용주의가 서로 맞물리면서 영남의 정신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또한 인조반정 이후에는 두 차례의 호란을 겪으면서 화이론에 입각한 文明意識 역시 강화되어 갔다. 이것은 大明義理 정신과 결부되면서 나타났다. 명나라가 망하고 오랑캐라고 생각했던 청나라가 중원을 제패한 것은 조선의 선비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다. 게다가 병자호란으로 인조가 남한산성에서 항복한 것은, 그동안 오랑캐라고 멸시하던 만주족 淸에게 문명국 조선이 군신관계를 맺는 치욕적 강화였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대명의리 정신은 실세한 척화론자들을 중심으로 표출되었다. 이런 이념의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준 이가 鄭蘊(桐溪, 1569-1641)이다. 강력하게 척화를 주장하던 정은은 자결마저 시도하였는데, 이것을 실패하자 그는 고향 거창으로 내려가 산속에 집을 짓고 이름을 某里라 하였다. 명나라의 마지막 연호인 崇禎을 고집하며 청나라 연호가 들어간 책은 보지

14) 宋浚吉, <有明朝鮮正憲大夫, 吏曹判書兼知經筵春秋館, 成均館事, 弘文館大提學, 藝文館大提學, 世子左賓客, 贈崇政大夫, 議政府左贊成兼判義禁府事, 知經筵春秋館, 成均館事, 弘文館大提學, 藝文館大提學, 世子貳師愚伏鄭先生行狀>(鄭經世, 『愚伏別集』 권10), “禮學淹博, 無愧退陶, 當今可與論學者惟此一人.”

15) 이에 대해서는 정우락, 『영남을 넘어, 상주 우복 정경세 증가』, 예문서원, 2013, 85-96쪽에 자세히 다룬다.

16) 이후 星州醫局은 80여 년 뒤인 1692년(숙종 18) 성주목사 李國華(재임 1690-1692)에 의해 중수되었다. 현재 1693년(숙종 19) 송익(宋燾, 1631-1701)에 의해 작성된 筆寫本 『星州醫局重修記』(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642호)가 전한다.

도 앓았다고 한다. 이 때문에 후인들은 그가 살던 곳에 皇明閣과 花葉樓를 짓고, 모리 동구의 바위에 ‘崇禎年月 大明乾坤’이라는 글자를 새겨 기렸다. 정온이 송정 정묘년의 달력에 쓴 시는 이렇다.

崇禎年號止於斯	송정이란 연호가 여기에서 멈추었으니
明歲那堪異曆披	내년에는 어떻게 다른 역서를 펼쳐 보라
從此山人尤省事	이제부터 산인은 더욱 일이 줄었으니
只看花葉驗時移	단지 꽃잎이나 보면서 계절 가는 것을 알리라 ¹⁷⁾

정온의 <書崇禎十年曆書>이다. 그는 대명의리 정신에 입각하여 청나라 책력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이것은 청나라 이후의 시간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다만 꽃이 피고 지는 것에 따라 계절, 즉 시간을 감지할 따름이었다. 정온이 세상을 뜨자 그의 제자 宋翊은 스승의 대명의리정신을 높여 제문을 지었다. 그는 이 글에서 “선생은 정도를 굳게 지켜서 의리를 굽히지 않았으니, 배를 찢어 죽지는 못했으나 정대한 기운 더욱 매서웠네. 벼슬을 버리고 고향에 돌아와 인간의 모든 일을 사절했으니, 만 겹으로 둘러싸인 구름 낀 산, 한 칸 방은 편안하고 한가롭네.”¹⁸⁾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어나갔다.

大明天地	명나라의 하늘과 땅
崇禎日月	송정 시대의 해와 달
今其已矣	이제는 이미 끝나 버렸으니
節義誰托	그 절의를 누구에게 의탁할까
朝家無祿	나라는 불행히도 복이 없고
士林靡依	사림은 의지할 곳이 없다네 ¹⁹⁾

위의 글에서 송익은 스승 정온의 사상을 “대명천지 송정일월”로 이해

17) 鄭蘊, 『東溪集』 卷1, <書崇禎十年曆書>

18) 宋翊, 『桐溪續集』 권2, <士林祭文>, “先生守正, 義不見屈. 腹劍不死, 正氣愈烈. 退歸田墅, 謝絕人間. 萬疊雲山, 一室安閑.”

19) 宋翊, <士林祭文>(『桐溪續集』 권2)

하고 있다. 정온이 이를 지키며 죽었으니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다고 했다.²⁰⁾ 이러한 생각은 하나의 문화로 확장되면서 산천에 두루 새길 수 있었다. 즉 문학작품은 물론이고 정자의 이름이나 바위의 각석으로 다양하게 표현되었던 것이다. 예컨대, 박명부의 은거지인 弄月亭도 달을 희롱한다는 의미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암흑의 시대에 문명을 밝힌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²¹⁾ 蔡得沂가 상주의 경천대에 “大明天地 崇禎日月”이라 새겼던 것도 같은 이치이다. 이밖에도 崔東集처럼 조선의 허다한 崇禎處士들이 나타나 명나라를 기리며 문명을 지켜가고자 했다.

우리는 여기서 임란 이후의 영남을 이해함에 있어 이단을 배제하고 道統論을 강조하는 문명의식을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²²⁾ 영남사상사의 핵심적인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강우지역의 춘추대의정신, 강좌지역의 주리설, 강안지역의 실용주의적 학문태도도 중국에는 모두 이 문명의식에 귀납된다. 남명학과와 퇴계학과, 그리고 한강학과가 강조한 『心經』은 도통론과 결부되지 않을 수 없고, 여기서 강조한 ‘敬’ 개념은 金宗直(佔畢齋, 1431-1492)을 필두로 한 영남 사립과의 도맥과도 자연스럽게 접속된다. 따라서 김종직이 성주향교를 찾아 공자를 배알하고 ‘우리 동방의 문명, 일찍이 仁賢이 다스리던 곳!’이라는 외침은 실로 우연이 아니라고 하겠다.

20) 이후 정온의 이 같은 대명의리 정신을 드높이며 모리에 들러 추모의 엄을 감추지 않은 선비들이 많았다. 鄭載圭(1843-1911)는 그 대표적이다. 그는 거창의 모리를 방문하고 정온의 시를 차운하여, “대명의 세상이 여기에서 끝났으나(大明天地止於斯), 삼백 년 동안 명나라 책력만 펼쳤네(三百年來舊曆披). 옛날 꽃과 나뭇잎 지금도 변함없으니(昔時花葉今無恙), 이 인륜 부지하여 영원히 변치 않으리(扶植彝倫永不移).”라고 한 바 있다.

21) 류후조는 <弄月亭重建記>에서, “농월정이라는 세 글자를 특별히 바위에 새긴 것은 무슨 뜻인가? 공이 동계 정 선생과 의리를 부지한 것은 또한 당시의 魯仲連과 같은 것이었다. 공이 이 정자에 올라 못 위의 명월을 노중련으로 본 것인지도 모른다. …… 지금 공은 동해에 사는 사람으로서 尊周大義로써 동해에 명월을 다시 뜨게 하였으니, 노중련에 비해 빛이 더 있다.”라고 하였다.

22) 영남 선비들의 문명의식에 대해서는 정우락, 「조선시대 영남 선비들의 산수유람과 지향의식」, 『남명학』 19, 남명학연구원, 2014, 374-378쪽에서 다루었다.

Ⅲ. 감성의 네 가지 유형²³⁾

문학은 본질적으로 감성 영역에 속한다. 이 때문에 이성에 무한한 신뢰를 보였던 도학자들은 문학을 하나의 餘技로 보았던 것이다. 감성은 인간의 실천적 활동뿐만 아니라, 미적·예술적 활동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어떤 사건이나 사물을 만났을 때 감성은 여기에 일정한 반응을 하게 되는데, 작가들은 그 반응의 결과를 작품이라는 형식으로 표출한다. 이때 시간과 공간 개념을 적용시키면 시간 감성과 공간 감성을 일으킨다. 예컨대, 과거의 특정 사건을 회고하면서 창작한 작품이 전자에 해당한다면, 수많은 사물과 부딪히며 생성된 작품은 후자에 해당한다. 그리고 여기에는 일정한 유형이 있기 마련인데, 이 장에서는 이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이를 통해 임란 이후 영남문인들의 작품을 보다 구조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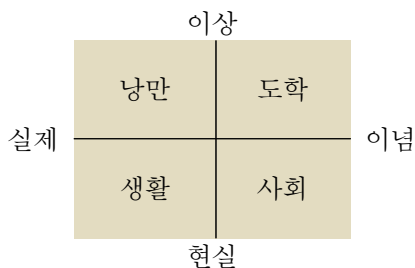
1. 분류 기준

서정적 자아가 외부 사물과 접촉하면서 일으키는 일련의 정서를 감성이라 한다면, 이 감성은 작가의 상이한 지적·정서적 상황과 사물의 현실적 상황이 상호 맞물려 교호작용을 하면서 형성된다. 감성이 사물에 대한 감응이라는 문자적 해석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감성이 한결같지 않은 데 문제가 있다. 같은 시공간이라 할지라도 작가 혹은 사물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를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가능성 여부에 따라 ‘이상’과 ‘현실’, 행동성 여부에

23) 본고에서 제시한 감성을 ‘공간 감성’의 측면에서 정우락이 「낙동강과 그 연안지역의 공간 감성과 문학적 소통」(『한국한문학연구』 53, 한국한문학회, 2014)에서 처음으로 다루었고, 이어 최은주가 「조선시대 영남대로의 공간 감성과 문학적 의미 연구」(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에서 영남대로에 확대 적용시켰다. 본고는 여기에서 나아가 ‘생활 감성’을 보태어 4분법으로 체계화하고 이를 문학연구방법론적 측면에서 새롭게 이론화하였다.

따라 ‘이념’과 ‘실제’라는 두 축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들 개념은 서로 상반되면서도 일정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들의 관계성 속에서 감성의 유형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두 가지 이상이 서로 맞물리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서 다음 그림을 주목해 보기로 하자.

<그림 1> 감성의 유형



세로축은 이상과 현실이고, 가로축은 이념과 실제이다. 이 네 개념은 서로 연관성을 가지기도 하고 대척점에 서기도 하면서 일정한 구도를 만들어내는데, 위의 좌표가 그것이다. 이 좌표에서 제1사분면은 도학 감성으로 이상과 이념이 우세할 때 나타나고, 제2사분면은 낭만 감성으로 이상과 실체가 강조될 때 나타난다. 그리고 제3사분면은 생활 감성으로 실제와 현실이 강조될 때 나타나고, 제4사분면은 사회 감성으로 이념과 현실이 강조될 때 나타난다. 도학 감성과 낭만 감성이 이상에 입각하여 추상적이고 보편적이라면, 생활 감성과 사회 감성은 현실에 입각하여 구체적이고 특수적이다. 또한 도학 감성과 사회 감성이 이념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데 비해, 낭만 감성과 생활 감성은 실제적 경험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몇 가지 사실을 인지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따져보기로 한다.

먼저 도학 감성에 대해서다. 도학은 정주학 혹은 주자학의 별칭이기도

하나, 성리학이 유입, 발달하면서 수많은 조선의 작가들은 이 감성에 촉발되어 작품을 창작하였다. 이들은 당연히 성리학적 이념에 입각하여 그들만이 꿈꾸는 이상적 경계를 도학 감성으로 나타내고자 하였다. 이들은 중국의 주돈이나 주자 등의 의식세계와 문학적 풍격을 사모하였고, 이언적이나 이황 등이 이룩한 조선적 성과를 따르고자 했다. 또한 이이는 『精言妙選』에서 도학적 시론을 구체적으로 전개하기도 했다. 조선조 주자 학자들의 작품은 기본적으로 도학 감성에 의해 창작된 것으로 보아 마땅하다. 문학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문학에 비해 도학을 더욱 강조하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도학이란 무엇인가.

도란 것은 날마다 쓰는 사물에 마땅히 행해야 할 이치이니, 이는 모두 본성의 덕으로서 마음에 갖추어져 있어, 만물이 가지지 않음이 없고 어느 때이든지 그렇지 않은바 없다. 이 때문에 도란 잡시도 떠날 수 없다. 만일 도에서 떠난다면 어떻게 이를 본성대로 따르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군자의 마음에 항상 외경하는 바가 있어 비록 보고 듣지 못하는 곳에서도 감히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은, 천리의 본연을 보존하여 잠간의 사이일지라도 도에서 떠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²⁴⁾

위 글은 도에 대한 주자의 언급이다. 세간을 가장 중시하는 것이 유학이므로 이들을 신봉하는 자들은 이념과 이상을 일상성에 두었다. 도를 “日用事物當行之理”라고 정의한 데서 이러한 사실을 바로 알 수 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에 어떤 인간다움이 본질적으로 내재되어 있다는 것인 바, 여기에서 떠나면 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의거하여, 수많은 도학자들은 청산과 유수 등 자연물을 작품화하면서 영원성을 추구하였다. 천리의 본연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 작가들은 天人合一의 성리학적 이상을 표출하고자 했던 것이다. 『중용』에서 “天命之謂性”이라 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인간의 본성을 천명과 동일시하였다.

24) 朱熹, 『中庸章句集注』, “道者, 日用事物當行之理, 皆性之德而具於心, 無物不有, 無時不然, 所以不可須臾離也. 若其可離, 則豈率性之謂哉. 是以, 君子之心, 常存敬畏, 雖不見聞, 亦不敢忽, 所以存天理之本然, 而不使離於須臾之頃也.”

둘째, 낭만 감성에 대해서다. 낭만의 사전적인 의미가 ‘현실에 매이지 않고 감상적이고 이상적으로 사물을 대하는 태도나 심리’라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낭만 감성은 질서와 논리에 반항하면서 무한에 대한 동경을 추구한다. 고전적 상상력 속에서는 주로 풍류와 흥취를 통해 나타난다. 직관적인 인식과 학문적 체계 사이에는 다소의 거리가 있을 수 있지만, 시간과 공간에 따른 흥기된 정서의 발산이나 일상에 근거한 놀이는 풍류나 흥취와 일정한 연관관계를 가지면서 인간의 감성을 한층 고양시킨다. 윤선도의 다음 언급을 주목하자.

동방에 예로부터 <漁父詞>가 있는데, 누가 지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고시를 모아 곡조로 만든 것이다. 이 <어부사>를 읊조리노라면 강바람과 바다 비가 얼굴에 부딪히는 듯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훌쩍 세속을 떠나 홀로 서려는 뜻을 가지게 한다. 이 때문에 龔巖 선생도 좋아하여 싫증 내지 않았고 退溪 선생도 칭찬하여 마지 않았다. 그러나 음향이 상응하지 못하고 말뜻이 잘 갖추어지지 못하였으니, 이는 고시를 모으는 데 구애되었기에 局促해지는 흠결을 면치 못한 것이다. 내가 그 뜻을 부연하고 언문을 사용하여 <어부사>를 지었는데, 계절별로 각 한 편씩이며 한 편은 10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내가 곡조며 음물에 대해서는 진실로 감히 함부로 의논하지 못하며 滄洲吾道에 대해서는 더욱이 감히 내 뜻을 가져다 붙일 수 없으나, 맑은 강 넓은 호수에 조각배를 띄우고 물결을 따라 출렁일 때에 사람들에게 한 목소리로 노래하며 노를 젓게 한다면 또한 하나의 快事일 것이다. 또 훗날 滄洲에서 거처할 逸士가 반드시 나의 이 마음과 뜻이 부합하여 백세의 세월을 넘어 느낌이 일지 않으리라고는 못할 것이다.²⁵⁾

尹善道(孤山, 1587-1671)가 쓴 <어부사시사>의 발문이다. 그는 이 작품을 春詞·夏詞·秋詞·冬詞로 나누어 각각 10수씩 지었으니 도합 40수다. 고려 때부터 고시로 전해지던 <어부가>를 이현보가 9장으로 만들었

25) 尹善道, 『孤山遺稿』 권7, <漁父四時詞>, “‘東方古有漁父詞, 未知何人所爲, 而集古詩而成腔者也. 諷詠則江風海雨生牙頰間, 令人飄飄然有遺世獨立之意, 是以, 龔巖先生好之不倦, 退溪夫子歎賞無已. 然, 音響不相應, 語意不甚備, 蓋拘於集古, 故, 不免有局促之欠也. 余衍其意, 用俚語作漁父詞, 四時各一篇, 篇十章. 余, 於腔調音律, 固不敢妄議, 余於滄洲吾道, 尤不敢竊附, 而澄潭廣湖片舸容與之時, 使人竝喉而相棹則亦一快也. 且後之滄洲逸士未必不與此心期, 而曠百世而相感也.’”

으나 ‘음향이 상응하지 못하고 말뜻이 잘 갖추어지지 못하’여 다시 짓는다고 했다. 특히 그는 <어부가>가 ‘강바람과 바다 비가 얼굴에 부딪히는 듯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훌쩍 세속을 떠나 홀로 서려는 뜻을 가지게 한다’라 하면서 낭만 감성을 고양시켰다. 이러한 흥취는 이보다 앞서 孟思誠(古佛, 1360-1438)이 지은 연시조 <강호사시가>에서 “江湖에 봄이 드니 미친 興이 절로 난다, 濁醪溪邊에 錦鱗魚 | 안귀로다, 이 몸이 閒暇해움도 亦君恩이샀다.”라고 노래했을 때의 그 ‘미친 興’에 맥이 닿아 있다. 윤선도 역시 ‘두어라 남은興이 無窮하니 갈길홀 이것쫓다(<어부사시사·춘사 9>)’라고 하면서, 흥취를 이어나갔다.

셋째, 생활 감성에 대해서다. 생활은 인간의 공적 활동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로 사적 활동이 중심을 이룬다. 의식주와 관련된 것이나, 여가와 취미 등을 포괄한다. 이러한 활동을 하면서 그에 따른 작가의 감성이 작동하고, 작가는 그것을 형상화해 작품을 산출한다. 이 때문에 여기에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나 실제적인 일이 중심을 이룰 수밖에 없다. 조선조 선비들은 무엇보다 일상을 중시했다. 이 때문에 안동지역의 선비 尹最植(道山, ?-?)은 『日用指訣』을 지어, 사대부의 일상을 위한 지침서를 만들기도 했다.²⁶⁾ 그는 하학에서 상달에 이르러야 하는 배움의 과정과 일상의 배움이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기본적인 관점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생활 감성은 이를 훨씬 벗어나기도 한다. 다음 자료를 보자.

흐림. 밥을 먹은 뒤 관사 형·평보 형과 함께 이 수찬을 전별하러 갔다. 저마다 술을 들고 갔는데 나는 송별시 3수를 증정하고 臺 위에 앉아 담화했다. 오후에 叅奉權任 닥에 가서 여러 순배 술잔을 나누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다. 이날 아침에 이지가 靈山의 과객 李厚慶이 전해 준 朴正郞의 편지를 보내 주었다.²⁷⁾

26) 이에 대해서는 윤성호, 「선비의 日課 공부: 『일용지결』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사학』 41, 한국교육사학회, 2019에 자세하다. 이에 대한 요약본이 『士夫日課』인데, 이에 대해서는 황위주, 「『士夫日課』를 통해 본 선비의 하루 日常」, 『퇴계학논집』 15, 영남퇴계학연구원, 2014에서 다루었다.

27) 金玲, 『溪巖日錄』, 1604년 1월 23일 조.

위의 자료는 金垚(溪巖, 1577-1641)의 『계암일록』 1604년(선조 37) 1월 23일 조의 기록이다. 이 수찬과 전별하기 위해 여러 사람들과 술을 들고 가서 전별시를 증정하며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다. 그리고 과객을 통해 편지를 주고받는 장면 또한 보인다. 조선시대 지식인들은 기록벽이 있을 만큼 자신의 생활을 꼼꼼히 기록하고 있는데, 일기를 통해 이것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전통사회가 봉제사와 접빈객을 중심으로 생활이 구성되어 있었다면, 이와 관련된 笏記나 祝文처럼 정형화된 것도 있지만, 告由文, 上樑文, 祭文, 輓詞 등은 이들의 일상과 그 체험을 반영한 것이라는 측면에서 주목된다. 그들의 생활을 다양한 장르로 매우 다채롭게 형상화하였던 것이다.²⁸⁾

넷째, 사회 감성에 대해서다. 우리는 흔히 이타적 관계에 바탕을 둔 가족과 대비된 보다 큰 공동체를 사회라고 한다. 사회는 일정한 경계 안에서 종교와 가치관, 그리고 규범과 문화를 공유하지만 명예나 이익을 서로 다투며 갈등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사회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하여 예와 법령이 시행되기도 하지만, 이에 따른 반칙과 모순으로 사회는 심각한 혼란에 빠지기도 한다. 사회를 구성하는 공동체는 자신이 살아가는 현실에 바탕을 둔 사회적 이념을 지니고 있으므로, 그 이념이 서로 다른 상호 충돌하기 마련이다. 조선시대의 봉당도 모두 이러한 원리에 의해 형성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작가들은 사회현실을 직시하는 현실주의적 작품을 창작하게 된다. 丁若鏞(茶山, 1762-1836)은 일찍이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문장은 반드시 먼저 경학으로 기반을 확실히 세운 뒤에 역사를 공부하여 정치의 득실과 치란의 근원을 알아야 하며, 또 모름지기 실용적인 학문을 연구하며 선배들이 쓴 經世에 관한 서적을 읽어야 한다. 이리하여 마음속에 항상 수많은 백성을 구제하며 모든 만물을 육성하려는 생각을 둔 뒤에야 비로소 독서하는 군자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한 뒤에 혹 안개 낀 아침이나 달 밝은 밤, 짙은 녹음과 가

28) 정우락, 「일상의 문학과 문학의 일상-영남의 종가문화를 중심으로」, 『유교사상문화연구』 80, 한국유교학회, 2020에서 자세히 다루었다.

랑비 내리는 것을 보면, 문득 시상이 떠오르고 구상이 일어나서 자연스럽게 노래가 읊어지고 저절로 이루어져서 천지자연의 소리가 맑게 울려 퍼질 것이니, 이것이 바로 생동감 있는 詩家인 것이다.²⁹⁾

정약용은 여기서 역사서와 경세서를 통해 백성을 구제하고자 하는 마음을 먼저 구축하고, 자연을 통해 감흥을 일으킬 때 그 작품은 생동감을 획득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때문에 그는 아들 淵兒에게 보낸 편지에서,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근심하지 않으면 시가 아니요, 시대를 슬퍼하고 풍속에 분개하지 않으면 시가 아니며, 칭송과 풍자와 권선과징악의 뜻이 있지 않으면 시가 아니다. 그러므로 뜻이 정립되지 못하고 학문이 순정하지 못하며 대도를 듣지 못하여 임금을 이루어주고 백성에게 베풀어줄 마음이 없는 자는 시를 지을 수 없다.”³⁰⁾라고 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그는 당대 현실의 모순을 꿰뚫히게 그리는 현실주의 문학을 구축할 수 있었다. 여기에 작동했던 것이 바로 사회 감성이었다.

2. 도학 감성

이상과 이념을 강조하는 도학 감성은 구체적 작품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구현되는가? 도학의 목표는 성인이 되는 데 있다. 이 때문에 군자는 學聖人을 위하여 끊임없이 자기수양을 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다른 사람과 교감하고자 한다. 修己安人으로 이것은 설명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曹好益(芝山, 1545-1609)은 “무릇 성인의 도를 배우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순수한 데 이른 다음에야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른바

29) 丁若鏞, 『與猶堂全書』 권21, <寄二兒>, “必先以經學立著基址, 然後涉獵前史, 知其得失理亂之源, 又須留心實用之學, 樂觀古人經濟文字, 此心常存澤萬民育萬物底意思, 然後方做得讀書君子. 如是然後, 或遇煙朝月夕, 濃陰小雨, 勃然意觸, 飄然思至, 自然而詠, 自然而成, 天籟瀏然.”

30) 丁若鏞, 『與猶堂全書』 권21, <寄淵兒>, “不愛君憂國, 非詩也, 不傷時憤俗, 非詩也, 非有美刺勸懲之義, 非詩也. 故志不立, 學不醇, 不聞大道, 不能有致君澤民之心者, 不能作詩.”

도를 스승으로 삼는 자가 아니다.”³¹⁾라고 할 수 있었다. 순수한 데 이른다는 것은 바로 수기를 말한 것이며, 수기에 입각해 도를 스승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이상과 이념을 강조하는 도학 감성이 문학적으로 형상화될 때, 그 도학의 내용이 직접적으로 표출되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형상화되기도 하며, 문화로 확장되기도 한다. 이를 순서대로 살펴보자.

첫째, 도학 감성을 직접적으로 형상화하는 경우이다. 李楨(龜巖, 1512-1571)은 도학의 정수를 <中庸詠> 14수로 읊은바 있다. <中>, <人心道心>, <理氣>, <性理>, <命性道教>, <道不可離>, <存養>, <慎獨>, <中和>, <致中和>, <中和中庸>, <時中>, <道其不行>, <誠道>가 그것이다. 이들 작품은 모두 『중용』의 대표적인 개념을 그대로 빌려와 운에 맞춘 것인바,³²⁾ 문학적 형상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학에서 제시하는 추상적인 개념을 직접적으로 문학적 장치에 담았기 때문이다. 정온의 <敬>이라는 작품 역시 같은 계열에 속한다. 그 일부는 이렇다.

有一言可終身行之	종신토록 행할 수 있는 한 마디 말이 있으니
旨哉聖訓之敬字	종지로다, 성인이 가르치신 경이라는 글자여!
收厥心而宅中	마음을 수렴하여 몸속에 머물게 하니
用涵養乎本地	이로써 본연의 성품을 함양하게 된다고
身稊米於兩間	내 몸은 천지 사이에 쌀알처럼 작지만
豈參三之無以	어찌 참여하여 삼재가 된 까닭이 없으랴
惟一心之虛靈	오직 虛靈不昧한 한마음이
作主宰乎萬事	모든 일의 주재자가 되기 때문이랴 ³³⁾

부의 형식을 지닌 <경>은 모두 72구로 되어 있는데, 위는 그 가운데 5-12구에 해당한다. 여기서 정온은 종신토록 행할 수 있는 성인의 가르

31) 曹好益, 『芝山集』 권2, <答鄭清允>, “夫欲學聖人之道者, 必至於醇而後已, 不然則非所謂師乎道者也. 茲故字之曰景醇父, 未知尊意如何.”

32) 이에 대해서는 정우락, 『『중용』이 구암 이정의 문학에 미친 영향』, 『동방한문학』 25, 동방한문학회, 2003에서 자세하게 다루었다.

33) 鄭蘊, 『桐溪續集』 권1, <敬>

침이 ‘경’ 한 자에 있다면서, 마음의 수렴을 통해 본성을 함양하기 때문에 삼재에 참여할 수 있다고 했다. ‘경’이 심의 주재자가 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도학을 밝힐 수 있는 것이 ‘경’의 한 조목인 惺惺法³⁴⁾을 밝히기도 했다. 이러한 생각은 『근사록』이나 『심경』 등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도학적 수양론의 핵심이다. 이러한 도학의 직접적 표출은 전달할 내용이 분명하기 때문에, 賦의 형식이 많이 활용된다. 吳健(德溪, 1521-1574)의 <活水>, 張顯光(旅軒, 1554-1637)의 <觀物賦> 등이 모두 이러한 계열에 속하는 작품이다.

둘째, 도학 감성을 간접적으로 형상화하는 경우이다. 작가들은 도학 감성을 간접화할 때는 다양한 비유법을 쓰기 마련이다. 형상이 마음과 감각에 의하여 떠오르는 대상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유를 통한 형상은 문학의 본령이다. 따라서 도학의 문학적 형상화는 성현이 전하는 도학적 메시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전한다. 예컨대, 孫處訥(慕堂, 1553-1634)이, “애석하도다, 10년 동안 묵은 발이여! 한 마리 소로는 진실로 같기가 어렵도다. 내 마음은 이보다 심하여, 거의 맑고 밝은 곳이 없구나.”³⁵⁾라고 하여, 그의 다스리지 못한 마음을 묵정발에 비유하면서, 맑고 밝은 마음을 갖게 되길 회구한 것이 그것이다. 도학 감성은 우주의 충만한 생명력과 교감되기도 한다.

飛而鳶戾天 나는 술개 하늘에 이르고
躍而魚在淵 뛰는 물고기 연못에 있네
飛躍不自知 날고뛰는 이치 스스로 모르니
俯仰理不玄 부앙의 이치도 현묘하지 않다네³⁶⁾

鄭琢(藥圃, 1526-1605)의 <鳶魚吟>이라는 작품이다. 여기서의 ‘연어’는 『시경』 「大雅」 <旱麓>이 그 출전인데, “술개는 하늘에서 날고, 물고

34) 鄭蘊, 『桐溪續集』 권1, <敬>, “誰知道學之克明, 實基一念之惺惺.”

35) 孫處訥, 『慕堂集』 권1, <陳田吟>, “可惜十年陳, 一牛誠難起. 吾心亦甚焉, 幾沒清明地.”

36) 鄭琢, 『藥圃續集』 권1, <鳶魚吟>

기는 못 속에서 뛰노누나.”³⁷⁾에서 ‘술개’와 ‘물고기’로 줄여 시어로 사용했다. 충일한 우주 생명력의 活潑潑을 이렇게 표현했다. 작가들은 이 같은 도학 감성을 드러내기를 즐겼다. 류성룡은 <鳶飛魚躍>이라는 글에서, “부자에게는 부자의 도가 있고, 군신에게는 군신의 도가 있으며, 부부·형제·봉우·萬事·萬物에 이르기까지 다 그렇지 않음이 없으니, 이것은 모두 하늘이 명한 바다.”³⁸⁾라고 해석하기도 했다. ‘盆魚’나 ‘庭草’³⁹⁾등도 모두 이러한 도학 감성을 형상화하기 위해 즐겨 사용되었던 용어다.

셋째, 도학 감성이 문화적으로 확장된 경우이다. 조선의 지식인들은 성리서에 대한 독서에 만족하지 않고, 이를 자신의 삶의 현장에 적용시키고자 했다. 적용하는 방법 중 하나는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문화적으로 확장하는 것이었다. 예컨대, 주자의 <觀書有感>에 따라 李震相(寒洲, 1818-1886)처럼 집의 정원을 만들면서 方塘을 파고 물을 끌어들이거나, 曹植(南冥, 1501-1572)의 후인들이 그의 <神明舍圖>를 설계도 삼아 雷龍亭을 건축하거나, 회연서원의 경우처럼 ‘鳶飛魚躍’, ‘光風霽月’이라는 커다란 목판을 만들어 선비들이 인쇄해 가게 했던 것이 모두 그러한 것이다. 때로는 도학의 핵심 개념을 암석에 새기거나 현판으로 만들어 문미에 달기도 했다. 이 가운데 조선 땅에 조성하였던 구국문화는 도학 감성이 문화로 접속된 대표적인 사례가 된다. 경상북도 권의 대표적인 구국만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37) 『詩經』「大雅」〈旱麓〉. “鳶飛戾天. 魚躍于淵.”

38) 柳成龍, 『西厓集』 권15, <鳶飛魚躍>, “在父子則有父子之道, 在君臣則有君臣之道, 以至夫婦也, 兄弟也, 朋友也, 萬事萬物, 無不皆然, 此皆天之所命.”

39) 程明道가 창 앞에 무성하게 우거진 잡초를 베지 말게 하면서, “만물을 살리려고 하는 조물의 뜻을 항상 보고 싶다.(欲常見造物生意)”라고 하였고, 또 향아리 속에다 물고기 몇 마리를 기르면서, “만물이 자득하는 뜻을 관찰하고 싶다.(欲觀萬物自得意)”라고 하였다고 한다.

〈표 1〉 경북의 구곡

순번	시군	구곡명(관련 인물)	구곡 수
1	안동시	도산구곡(이아순 등), 퇴계구곡(이종휴·이가순), 예안구곡(미상), 예안십사곡(미상), 하회구곡(류건춘), 임하구곡(미상), 와계구곡(김성흠), 고산칠곡(이상정), 백담구곡(권평), 남계구곡(이재찬), 절강구곡(류취문)	11
2	영주시	죽계구곡(미상), 소백구곡(이가순), 초암구곡(미상), 운포구곡(장위향), 무도구곡(장위향), 동계구곡(김동진), 초계구곡(김두석), 무도칠곡(장위향),	8
3	문경시	선유칠곡(남한조), 선유구곡(정태진), 쌍룡구곡(민우식), 화지구곡(권섭), 청대구곡(권상일), 석문구곡(채현), 산양구곡(채현),	7
4	봉화군	오계구곡(김정), 대명산구곡(강필효), 법계구곡(강필효), 준양구곡(이한응), 광진구곡(정형), 물야구곡(정영), 구룡산구곡(미상), 황계구곡(미상), 갈산구곡(김희주)	9
5	성주군	무흘구곡(정동박), 쌍계구곡(정동박), 포천구곡(이원조), 조양구곡(이수인)	4
6	예천군	수락대구곡(송상천·권방), 은산구곡(미상)	2
7	영천시	황계구곡(정만양·정규양), 성고구곡(이형상)	2
8	경주시	옥산구곡(이가순), 양동구곡(이정엽), 석강구곡(한문진)	3
9	고령군	낙강구곡(박리곤), 도진구곡(박리곤)	2
10	청도군	운문구곡(박하담), 오대구곡(이중경), 남산십삼곡(미상)	3
11	영양군	일월산구곡(이제만), 곡강구곡(금소술)	2
12	상주시	우산구곡(정상리), 연악구곡(권응철)	2
13	포항시	덕계구곡(이현숙)	1
14	칠곡군	명연구곡(류달해)	1
15	김천시	황남구곡(이관빈·윤희배), 남산구곡(미상)	2
계			59

한국의 구곡은 이름만 전하는 것을 포함하면 현재까지 163개소가 확인된다.⁴⁰⁾ 이러한 사실은 구곡문화가 한국의 선비문화를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 가운데 영남권이 압도적이다. 그 전체적인 규모를 보인 것이 위의 표인데, 한국 구곡의 거의 1/3이 이 지역에 포진하고 있다. 이 구곡문화는 성격이 조금 다른 것이 있기도 하지만, 도에 들어가는 순서인 入道次第에 의해 창작한 작품이 많다. 물을 거슬러 오르면서 본성을 회복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이를 염두에 둔다면, 구곡문화는 도학 감성이 자신이 사는 자연을 중심으로 확장되면서 문화화한 것이라 하겠다. 선비들은 이로써 성리학적 소우주를 자신이 사는 지역원림을 중심으로 구현할 수 있었다.

3. 낭만 감성

낭만 감성은 인간이 자연과 인간에게 느끼는 가장 원초적인 것이다. 즉, 낭만 감성은 도학 등 이념이나 사상 이전의 문제이다. 이것은 객관적인 경물에 대한 주관적인 정서가 상호 교감하면서 이루어진다. 낭만 감성은 『시경』의 육의 가운데 하나인 興과 견주어 이해할 수 있으며, 因物起興 혹은 以我觀物으로 요약해 말할 수 있다. 앞의 것은 경물로 인해 자아의 정감이 작동하는 것이고, 뒤의 것은 주관적인 情志가 경물을 통해 표현되는 것이다. 즉 ‘인물기흥’에서는 외적 사물이 선행한다면, ‘이아관물’에서는 내적 정지가 선행한다.⁴¹⁾ 이처럼 경물과 정지, 혹은 景과 情이交融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낭만 감성은 밖으로 경물을 지향하기도 안으로 정지를 지향하기도 한다. 이 역시 문화로 확장되기도 한다.

40) 노재현, 「한국 구곡문화 연구의 성과와 전망-구곡원림의 전국 분포와 설곡 특성을 중심으로-」, 『동아시아의 구곡문화와 강원 콜로키움 발표자료집』, 춘천박물관, 2020 참조.

41) 서정 한시의 의미표출을 경물지향과 정감지향이라는 두 축에 입각해 따진 것은, 윤호진의 「서정 한시의 의미 표출 양상에 관한 연구-의미표출양상에 있어서 경물지향과 정감지향의 두 축을 중심으로-」(성관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이다.

이를 차례대로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낭만 감성이 경물을 지향하며 형상화되는 경우이다. 이는 주로 인물기흥에 논리적 근거가 닿아 있다. 인물기흥은 주로 자연을 매우 객관적으로 그려내는 데 성공하며, 주관적 정서를 가능한 배제하기 때문에 즉물적 형상에 유리하다. 이 때문에 구체적이며 특수한 자신의 경험을 작품에 담기보다 경물을 통한 인간의 일반적 정서에 호소한다. 수석이나 매화 등의 구체적인 사물을 관찰하며 그 형태를 사실적으로 그리기도 하고, 시야를 보다 확대하여 산수화 등에서 볼 수 있는 낙조의 아름다움 등 자연을 있는 그대로 작품에 담기도 한다.

主人克繼先人志	주인은 능히 선친의 뜻을 계승하여
不棄遺基肯構家	남은 터 버리지 않고 집을 지었네
鷗鷺元來皆舊面	물새가 나는 것도 모두 옛모습 그대로
時從風浪自相過	때때로 바람을 따라 물결이 일렁이네 ⁴²⁾

柳時藩(沙月堂, 1569-1640)이 금호강 가에 지은 小有亭에 차운한 시이다. 이 정자는 원래 蔡應麟(松潭, 1529-1584)이 지은 것이다. 임진왜란으로 소실되자 그의 아들 蔡先吉(琴灘, 1569-1646)이 1609년(광해군 1) 이를 다시 중건하였는데, 위의 시는 그 때 지은 것이다. 이 작품에서 주인은 채선길을, 선인은 채응린을 가리킨다. 즉 채선길이 그 아버지의 뜻을 계승하여 소유정을 중건하였으니, 2구에서처럼 남은 터에 집을 지었다고 할 수 있었다. 이어 3-4구에서는 물새가 날고 물결이 바람에 따라 일어나는 정경을 묘사하였다. 이처럼 류시번은 자신의 정감을 최대한 이입시키지 않고, 있었던 사실과 보이는 정경을 즉물적으로 묘사하는 데 그친다. 경물을 지향하는 낭만 감성이 표출된 작품이라 하겠다.

둘째, 낭만 감성이 작가의 정지를 지향하며 형상화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의 경물은 시인의 정서를 표출하기 위하여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될 따름이다. 이아관물, 즉 자아를 통해 사물을 보기 때문에, 이 때의 감성

42) 柳時藩, 『沙月堂集』 권1, <次小有亭韻>

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작가의 정지에 의해 경물은 능동적으로 재창조된다. 즉 안으로 자신의 정지를 지향하는 작품은 작가의 특수한 경험과 독창적인 세계관에 입각하여 자연을 새롭게 인식한다. 이 때문에 낭만 감성이 작가의 정지를 지향할 경우 그 작품은 참신한 이미지를 획득하기가 용이하다. 다음 작품을 통해서 이러한 측면을 보자.

春粧催罷倚焦桐	봄단장 서둘러 끝내고 거문고에 기대니
珠箔輕明日上紅	주렴에 붉은 햇살 가버이 밝아오네
香霧夜多朝露重	향그런 밤안개 담백 내려 아침 이슬 무거운데
海棠花泣小牆東	동쪽의 작은 담장 아래 해당화가 울고 있네 ⁴³⁾

기녀 雪竹이 지은 <춘장>이다. 설죽은 權機(冲齋, 1478-1548)의 손자 權來(石泉, 1562-1617)의 侍廳婢였다가 成輅(石田, 1550-1615)의 비첩이 된 인물이다. 그녀의 한시 166수가 權尙遠(遠遊, 1571-?)의 『白雲子詩稿』에 필사되어 전해진다. 설죽은 우선 정경을 매우 아름답게 묘사하였다. 1구의 춘장과 거문고, 2구의 주렴 사이로 떠오르는 경쾌한 아침 햇살, 3구의 간밤의 향그런 안개로 맺힌 아침 이슬, 4구의 작은 담장 아래서 눈물 흘리는 해당화가 그것이다. 1-2구에서 기쁨과 희망의 정지를 햇살로 나타냈다면, 3-4구에서는 외로움의 정지를 눈물로 나타냈다. 해당화에 맺힌 붉은 이슬은 바로 설죽의 눈물이라 하겠는데, 그 눈물은 슬픔으로 전락하지 않는다. 외로움의 정지를 해당화와 이슬을 소재로 하여 매우 독창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셋째, 낭만 감성이 문화로 확장되는 경우이다. 자연에 대한 아름다움에 대한 정서는 인류보편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서를 더욱 강조하기 위하여 작가들은 정자나 누각 등의 집을 건축하여 原韻을 남기면 다양한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 차운시를 짓는다. 이로써 특정 공간은 하나의 문화공간으로 성장한다. 이를 더욱 확장시켜 8경문화를 접목시켜 집

43) 李德懋, 『靑莊館全書』 권33, 「淸脾錄」 2, <春粧>. 이 시는 李睟光的 『芝峯類說』 권14 「文章部」 7에도 전한다.

경시를 창작하기도 한다. 집경시는 대체로 짝수로 이루어진 8경을 기준으로 하여, 4경, 6경 10경, 12경 등 매우 다양하다. 조선에는 수많은 집경시들이 있는데, 鄭經世(愚伏, 1563-1633)의 <우곡20경>⁴⁴⁾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이는 <전 10경>과 <후 10경>으로 나누어지는데,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우곡 20경

구분	우곡 20경
<전 10경>	書室, 懷遠臺, 五峯塘, 五老臺, 翔鳳臺, 鰲柱石, 羽化巖, 御風臺, 萬松洲, 山影潭
<후 10경>	溪亭, 垂綸石, 船巖, 花漱, 雲錦石, 雙壁壇, 靑山村, 畫圖巖, 拱仙峯, 水回洞

정경세는 자신이 사는 우곡을 중심으로 전후 20경을 설정하고 각 경마다 7언절구를 지은 후 발문을 붙였다.⁴⁵⁾ <전 10경>은 ‘모두 앉거나 누워서 바라보며 아침저녁으로 즐기는 것’이라 하였고, <후 10경>은 ‘시내를 따라 거슬러 올라가 볼 수 있는 것으로 그 순서와 거리는 가까운 것은 수백 보 거리이고 먼 것은 일, 이리 혹은 신발과 지팡이를 갖추어 가거나 혹은 지름길로 말을 타고 가거나 해야 하는데 흥이 일어 가면 돌아올 것을 잊어버릴 정도의 승경’이라 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정경세가 생활공간인 ‘서실’ 草堂과 수양공간인 ‘계정’ 聽澗亭을 중심에 두고 우산동천을 경영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의 낭만 감성이 문화적으로 확장되었던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44) 이에 대해서는, 정우락, 『영남을 넘어, 상주 우곡 정경세 증가』, 예문서원, 2013, 28-43쪽에 자세하다.

45) 정경세의 우곡 20경은 훗날 그의 7대손 鄭象履(制庵, 1774-1848)에 의해 우산구곡으로 새롭게 탄생한다. 구체적인 구곡명은 水回洞, 畫圖巖, 靑山村, 花漱, 船巖, 垂綸石, 溪亭, 愚巖, 御風臺이다. 이는 필사본 『愚山書院誌』에 자세하다.

4. 생활 감성

생활 감성은 인간이 실제적 생활을 하면서 부딪치는 다양한 체험 속에서 일어난다. 따라서 이념이나 이상보다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을 중시하기 마련이다. 생활의 구성요소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 필수적인 의식주와 관련된 활동 외에도, 인간 활동의 총체성을 나타낸다. 즉, 생로병사와 관련된 일, 학문과 여가 활동, 사랑과 질투, 질병과 종교 등 그 범위를 특별히 제한 받지 않지만 대체로 지극히 사적 영역으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에는 생활주기에 따라 반복되는 것도 있지만, 우연한 기회에 경험하는 일회적인 것도 있다. 이처럼 생활은 순환적이면서도 일시적이다. 이 같은 지속과 변화를 기저에 두면서, 여기서는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생활 감성의 주요 부분 몇 가지만 검토하기로 한다. 죽음과 애도, 친목과 계회, 생활의 소사가 그것이다.

첫째, 죽음과 애도에 따른 생활 감성에 대해서다. 생로병사는 인간이면 누구나 겪기 마련이다. 이 가운데 죽음과 애도는 고인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한 감성과 결부되고, 조선시대 사대부들은 이를 적극 작품화하였다. 생로병사 가운데 죽음과 관련된 작품이 가장 많고, 작품 형식으로는 만사나 제문이 대표적이다. 이 만제문은 전형화되어 체면치레용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죽은 이와의 정서적 소통을 적실히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학형식이다. 애도의 대상은 아버지와 아내 등 가족도 있고, 친구나 스승 등 사회적 관계망에서 만들어진 경우도 있다. 다음 작품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關西千里道路脩	관서 지방 천 리라서 오가는 길 멀고 멀어
思兄憶弟添新愁	형제들을 그리느라 새로 시름 더하였네
殊方落日歸心絕	타향 땅서 지는 해에 돌아갈 맘 끊기었고
彼此消息通無由	피차간에 이쪽저쪽 소식 통할 길 없었네
無何壬辰遭大亂	얼마 뒤에 임진년의 크나큰 난리 나매
劇賊長驅攔海陬	왜적들 몰아쳐 와 바다 고을 유린했네
主將竄走列城崩	장수들 도망쳐서 성이 모두 무너지니

何人厲氣能援袍	누가 투지 불태우며 복채 손에 잡으리오
誰知一介白面生	그 누군들 알았으랴 일개의 백면서생
忠憤激烈多奇謀	충성 울분 솟구쳐서 기이한 꾀 낼 줄을
倡義勸誘民響應	창의하여 모집하자 의병들이 모여들어
忘身奮擊期復讐	죽음 잊고 왜적들 쳐 복수하길 기약했네 ⁴⁶⁾

위 작품은 鄭世雅(湖叟, 1535-1612)가 지은 것으로 조호익을 위한 만사의 들머리다. 그는 여기서 조호익이 임진왜란 때 전공을 세우고, 정유재란 때 다시 의병을 일으켜 활약한 것을 특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어서, “서로 만나 한 여름도 채 지내지 못했는데, 약물조차 형의 병을 낮게 하지 못하였네. 하늘의 도 어찌하여 이 지경에 이르렀나, 갑작스레 유명간에 둘이 서로 격해 있네.”⁴⁷⁾라고 하면서 그와의 갑작스런 이별을 안타까워하였다. 이러한 만사는 영남지역 지식인은 물론이고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작품집에 다량 발견되는바, 모두가 인간 생명의 마지막 지점인 죽음을 응시하면서 일어난 생활 감성에 의한 것이다. 그러니까 죽음은 삶이 끝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듯하지만, 실은 삶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되었던 것이다.

둘째, 친목과 계회에 따른 생활 감성에 대해서다. 계 문화는 농촌을 중심으로 생활 속의 필요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생한 것인데, 조선시대 사대부의 경우도 매우 활발하였다. 계원들끼리 친목과 함께 서로 돕기 위하여 규약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중간의 宗契, 교육 집단과 관련된 詩契 혹은 文友契 등을 주목할 만하다. 丁若鏞(茶山, 1762-1836)의 竹蘭詩社, 李安訥(東岳, 1571-1637)의 東岳詩壇 등 허다한 시회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이러한 시회는 자연스럽게 遊山이나 遊船 등의 일련의 문화활동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그 후손이나 후학이 시대를 내려오면서 계승하기도 한다. 거창의 龍山泛菊會도 그 가운데 하나인데, 다음 작품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46) 曹好益, 『芝山集·附錄』 권2, <輓詞·鄭世雅>

47) 曹好益, 『芝山集·附錄』 권2, <輓詞·鄭世雅>, “相逢曾未閱一夏, 睽眚不使兄病瘳. 天道如何至此極, 奄忽此日隔明幽.”

德星南極報佳辰 덕성과 남극성이 좋은 때를 알리니
 函丈肩輿此岸巾 견여 탄 어른들 두건을 제껴 쓰고 모였네
 山似高懷分氣像 산은 고상한 품회인 듯 기상을 나눠주고
 水如清韻更精神 물은 맑은 운치인 듯 정신을 더해주네
 醉醒栗里盃中酒 율리 잔 속의 술로 취했다 깨어나고
 談笑耆英畫上人 기영회 그림 속의 사람처럼 담소를 나누네
 好是平生詩眼界 좋을시고, 평생의 시를 지을 만한 경계
 園林隨處不全貧 원림은 가는 곳마다 넉넉하다네⁴⁸⁾

鄭必達(八松, 1611-1693)의 <龍山泛菊會> 두 수 가운데 첫 번째 시이다. 용산범국회는 원래 정온이 1636년(인조 14) 9월 9일 중양절에 조직한 것이다. 당시 참여자는 정온을 비롯하여 인근의 선비 21인⁴⁹⁾이었다. 그러나 그해 병자호란이 일어나게 되고, 정온은 남한산성에서 척화를 주장하며 자결을 시도한다. 이후 그는 거창 모리로 다시 내려와 은거하게 되는데 그 후로 이 계획은 지속되지 않았다. 그러나 265년 뒤인 1900년 후인들이 이 계획을 부활시켰고, 1912년에는 기념비를 세웠으며, 1931년에는 『龍山泛菊會錄』을 발간하기에 이른다. 위의 작품은 정필달이 1636년(인조 14)에 지은 것으로 노소가 섞여 풍치를 즐기는 모습을 약여하게 그렸다.⁵⁰⁾ 이러한 친목과 계획문화는 낙강범월시회 등에서 광범하게 지속적으로 나타난다.⁵¹⁾

셋째, 생활의 소사에 따른 생활 감성에 대해서다. 앞서 언급한 바와

48) 鄭必達, 『八松集』 권1, <龍山泛菊會>

49) 21인은, 鄭蘊, 鄭緝, 曹挺立, 曹挺生, 曹時逸, 曹時亮, 申順蒙, 申汝亮, 林眞怱, 李奉一, 李壽樟, 郭弘圭, 李蘭美, 李瀨, 李應白, 文誠後, 金尙堅, 卞昌後, 金益堅, 崔後遠, 鄭必達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필달의 <용산범국회서>(『八松集』 권5)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鄭泰鎬 編, 『龍山泛菊會錄』(木活字本, 1931)에는 19인으로 曹挺生, 曹時逸이 빠져있다.

50) 정필달이 이 시를 지은 것은 26세였다. 범국회 조직 당시 그는 나이가 가장 어려웠는데, 이 작품은 당시의 사정을 알 수 있게 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51) 낙강범월시는 손유진, 『『壬戌泛月錄』에 나타난 空間 認識의 樣相과 意味』,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에서 본격적으로 연구된 바 있다.

같이 생활은 인간활동의 총체를 의미한다. 이것은 인간의 생활상에 일어나는 모든 활동이 작품의 소재로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아들이나 손자의 출생, 친구와의 만남과 이별, 거울 속에 나타난 백발의 노인, 족집게로 흰 머리 뽑기, 채소밭에 물주기, 종이 만들기, 술 마시기, 약 먹기,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기 등 수많은 일들이 모두 그것이다. 李縮(學稼齋, 1599-1669)의 경우를 예로 들면, 그의 생활상은 <首尾吟體>⁵²⁾에 갈무리되어 있다. 이 작품은 모두 13수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 한 수는 이러하다.

閑人非是解吟詩 한가해서 시를 읊는 것이 아니라

詩是閑人結網時 시는 한가한 사람 그물 짚 때를 읊는 것이라네

兩目相承成一器 두 눈을 서로 이어 한 물건 만드니

二才交遇作重離 상하 두 패 서로 만나 중화이괘 되었네

先天形象元開物 先天의 형상은 처음 만물을 열어줌이고

神道裁成不用私 神道가 이루어짐에 사욕이 없다네

喫緊無非至理寓 요긴함은 어디든 바른 이치 붙어 있나니

閑人非是解吟詩 한가해서 시를 읊는 것이 아니라네⁵³⁾

이 작품은 이주의 <수미음> 가운데 ‘그물을 짚 때(結網時)’를 읊은 것이다. 그물을 짚다고 하였지만, 『주역』의 重火離(☲☲)괘의 공부 과정에서 제출된 것이다. 수련의 두 눈을 서로 잇는다는 것은 이를 말한 것이다. 그물과 독서를 자연스럽게 결부시킴으로써 사대부의 생활 속 감성을 표출하고 있다. <수미음>에서는 ‘농사를 배울 때(學稼時)’, ‘흔적을 지우려 할 때(浪迹時)’, ‘인생을 계획할 때(布置時)’, ‘홀로 볼 때(獨見時)’, ‘깜짝 놀랐을 때(錯愕時)’, ‘혼자 서 있을 때(獨立時)’, ‘자취가 흐릴 때(渾迹

52) 李縮, 『學稼齋集』 권1, <首尾吟體>

53) 李縮, 『學稼齋集』 권1, <首尾吟>

時)’, 『周易』을 읽을 때(讀易時)’, ‘고인을 벗하려 할 때(尙友時)’, ‘잘난 체하려고 할 때(自大時)’, ‘늙는 것이 슬플 때(悼老時)’, ‘크게 웃을 때(大笑時)’ 등으로 상상력을 확장해갔다. 이주는 이밖에도 농사, 꿈, 여행, 놀이 등을 주요 소재로 해서 작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물방아나 지팡이 등 생활의 용구들도 등장시켜 노래한다.⁵⁴⁾

5. 사회 감성

사회 감성은 인간사회에서 발생하기 마련인 다양한 갈등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러니까 인간의 사회적 활동 가운데 불평이 비판적 시각으로 형상화되어 나타난다는 것이다. 『시경』의 ‘風’이 ‘諷刺’나 ‘諷諭’처럼 사회적 풍간의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작가들은 당대의 사회적 부조리를 다각도로 비판한다. 현실에 대한 이러한 비판은 작가가 확고한 이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를 인식하면서 여기서는 작가들의 곤고한 민생에 대한 사실적 묘사, 특정 공간에서의 인물 회고, 개인의 험난한 체험에 대한 기록 등을 차례대로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곤고한 민생을 사회 감성에 따라 사실적으로 묘사한 경우이다. 이러한 사실이 尹鉉(菊磻, 1514-1578)의 <嶺南歎>에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이 작품에 의하면 “예로부터 영남은 살기 좋은 고장이라서, 물산이 풍부하기로 팔도에서 으뜸”⁵⁵⁾이었지만, “이렇던 고장이 수년 이래로 인사는 실로 괴롭기 그지없네, 번성하던 도회는 차츰 쓸쓸해 가고, 살기 좋은 전원은 날로 황량하여 예전에 백 호나 되던 마을이 지금은 몇 집이 있을까? 예전에 샅을 주어 갈던 밭이 지금은 잡초 마당으로 변

54) 생활시의 대한 전반적인 논의는, 김석희의 「存齋 魏伯珪의 생활시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장기근의 「생활시인 두보의 본령」(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정우락의 「학가재 이주의 사상경향과 일상으로서의 문학」(『대동한문학』 65, 대동한문학회, 2020) 등에서 이루어졌다.

55) 尹鉉, 『菊磻集』中, <嶺南歎>, “南鄉古樂土, 殷庶冠八方.”

했구나.”⁵⁶⁾라고 하면서 당시 영남의 사정을 전했다. 이렇게 된 결정적인 이유를 그는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金誠一(鶴峯, 1538-1593)은 모자의 이별을 소재로 이를 더욱 구체화시켰다. 그 일부를 다음에서 보자.

天寒歲暮四壁空	세모의 추위 속에 바람벽만 썰렁하여
全家饑饉何太迫	온 식구들 굶주림에 진저리를 쳤다오
公門賦役尙填委	그런데도 관가의 부역 점점 더 많아져
縣官號令星火急	수령의 호령 소리 성화같이 급했다오
追胥連保索官租	아전들은 연좌시켜 관가 세금 독촉하며
鞭扑狼藉爭拮克	매질 마구 해 대면서 앞다투어 걷었다오
眼前瘡痍醫未了	눈앞에 난 종기 아직 다 낫지도 않았는데
高曾逋負來相督	고조 증조 묵은 포흠 줄이어서 독촉했지
有司猶懷經費虞	유사들은 관가 경비 모자랄까 걱정하여
日將期會申戒勅	기한 내에 다 갚으라 날마다 성화였지
深於賦民是能吏	세금 많이 걷어야만 능력 있는 관리이고
拙於催科必見劾	세금 독촉 잘못하면 필히 견책 당했다오 ⁵⁷⁾

이 작품은 김성일의 <모별자>로 도합 60구로 구성되어 있다. 이 장편 시에서 작자는 모자가 이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뭄으로 인한 흉년과 관가의 수탈로 들었다. 위는 특히 관가의 수탈을 적시한 부분이다. 이 작품에서 김성일은 “몇 해 동안 국록을 받아먹다 보니, 날 추우면 옷 있었고 배고프면 밥 있었지. 눈에 보이는 처자식의 걱정조차 몰랐으니, 그 어찌 창생들의 통곡 소리 들렸으리.”⁵⁸⁾라고 하면서 한편으로 사대부로서의 자기비판을 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과도한 수탈과 세금을 독촉할 수밖에 없는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 대해서도 적기하였다. 사회 감성

56) 尹鉉, 『菊磻集』 中, <嶺南歎>, “自從數年來, 人事實堪傷. 繁都漸蕭條, 樂郊日荒涼. 昔日百家村, 數戶僅有亡. 昔日貨賃田, 直爲青草場.”

57) 金誠一, 『鶴峯集』 권1, <母別子>

58) 金誠一, 『鶴峯集』 권1, <母別子>, “數載蒙恩仰太倉, 寒有餘衣飢有食. 眼中不解妻子憂, 耳邊豈聞蒼生哭.”

이 매우 짙진하게 드러나는 작품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특정 공간에서의 인물 회고를 사회 감성에 따라 한 경우이다. 이는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서 발생한 사건이나 경험이 작품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이와 관련된 인물이 작가의 회상을 통해 사회 감성과 맞물리면서 새롭게 소환되기도 한다. 특히 여행과정에서 일정한 공간을 답사하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밀양부사 李英이 전란으로 소실된 영남루 자리에 1599년(선조 32) 초옥을 짓자, 孫起陽(磬漢, 1559-1617)이 여기에 대하여 시를 지어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마음을 아프게 한다고 했다. 이어 “누가 새 누정을 지어 憶昔⁵⁹⁾이라 이름하였나? 석양이 한과 뒤섞여 자리에 가득하네.”⁶⁰⁾라고 하였던바, 여기서 말한 ‘한’은 사회 감성에 의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 시에서도 같은 정서가 드러나고 있다.

壬辰討倭義士多	임란 때 왜적을 토벌한 의사가 많았지만
紅衣將軍孰能過	홍의장군보다 더 나은 이는 없었으니
將軍初自宜寧起	장군은 본래 의령에서 일어나
請誅逗撓奮天戈	비겁자를 죽이라며 정의의 칼을 떨쳤다네
登陣白馬以橫行	백마에 올라 중흥으로 거침없이 내달으니
一望紅衣衆倭驚	붉은 옷자락 한 번 봐도 못 왜놈들은 기겁을 하였다네
逡巡不敢與交鋒	달아나는 판에 누가 감히 칼을 들로 맞서랴
及至相薄風火生	이르러 싸우는 곳마다 바람과 불꽃 일어났다네
砲丸雨落雪鬣騰	비 오듯 떨어지는 포탄 사이로 눈 빛 말갈기는 날렸고
鐵甲潮退霞袍輕	철갑이 조수처럼 밀려갈 땐 노을 빛 전포 펴려였다네
將軍跳宕蓋有神	뛰고 달리는 장군에겐 아마도 신령이 붙은 듯
料敵設奇又殊倫	적군을 헤아리고 묘책을 세우나니 누구와 견주리 ⁶¹⁾

59) 손기양 시의 소주에 “부사 이영이 영남루 터에 초옥을 짓자 巡相 韓浚謙이 그 초옥의 이름을 ‘憶昔’이라 하였다.”라고 기록해두고 있다.

60) 孫起陽, 『磬漢集』 권1, <敬次漢陰李公過嶺南樓舊址韻>, “誰構新亭名憶昔, 夕陽和恨滿賓筵.”

61) 金昌翁, 『三淵集』 권8, <紅衣將軍歌>

金昌翁(三淵, 1653-1722)이 지은 30구로 이루어진 <홍의장군가>의 들머리다. 그는 “말을 유허에 세우고 길이 한 번 읊노라”라고 하면서, 郭再祐(忘憂堂, 1552-1617)의 유허를 지나면서 그를 추모하고 있다. 작품의 전반부는 전쟁의 영웅담을, 후반부는 전쟁 이후의 은거를 노래하였는데, 위의 자료는 그 전반부에 해당한다. 작자는 여기서 임란을 맞아 광재우가 가장 많은 공을 세웠다면, 백마를 타고 정의로운 창을 휘두르면서 왜적을 무찌르는 그의 위용을 거침으로 묘사했다. 사회 감성은 이처럼 역사유적을 통해 다량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다. 이현일이 병자호란을 맞아 오랑캐가 南漢山城으로 닥쳤을 때 시국에 가슴 아파하며 지은 <詠牕前梅>⁶²⁾ 등도 모두 사회 감성에 해당하는 작품들이다.

셋째, 개인의 험난한 경험을 사회 감성에 입각해 기록하는 경우이다. 일기는 주제에 따라 그 유형을 다양하게 나눌 수 있지만, 전란을 소재로 한 일기에 사회 감성이 가장 잘 나타난다.⁶³⁾ 이것은 부조리한 현실 상황을 자각하면서 어떤 사회적 이상을 꿈꾸기 때문에 발생한다. 한 조사에 의하면, 18-19세기에 일기자료가 가장 많고, 이 가운데 전쟁일기는 그 양적인 측면에서 사행일기와 기행일기 다음이다.⁶⁴⁾ 이것은 당대 지식인들이 전쟁이라는 특수한 역사적 체험을 기록을 통해 후세에 남기고자 하였기 때문에 가능하다. 전란으로 인해 발생한 포로의 경험을 다룬 것도 있지만, 임병양란을 거치면서 자신이 체험한바를 기록한 것이 특히 많다. 그 가운데 鄭慶雲(孤臺, 1556-?)의 『고대일록』 몇 대목을 들어보기로 하자.

- ① 永康 마을에서 양식을 빌렸다. … 피란에 분주하여 오늘에 이르러서는 계책이 급하게 되어 처음 양식을 빌리니 나의 마음이 어떠하겠는가!⁶⁵⁾

62) 李玄逸, 『葛庵集』 권1, <詠牕前梅>, “牕前四梅樹, 開向黃昏月. 欲飲花下酒, 奴賊圍城闕.”

63) 물론 종합 생활일기에 사회 감성이 드러나기도 하고, 전쟁에 관한 기록 역시 詩歌를 비롯하여 설화나 소설, 혹은 傳 등의 문학작품에 두루 나타나기도 한다.

64) 최은주, 「조선시대 일기 자료의 실상과 가치」, 『대동한문학』 30, 대동한문학회, 2009, 12쪽 참조.

- ② 志夫를 만나 시장에서 양식을 구걸했다. 두꺼운 얼굴에 부끄러워 마치 시장관에서 매를 맞는 것 같으니, 곤궁함에 마음이 상하는구나!⁶⁶⁾
- ③ 川村 및 參禮驛에서 양식을 구걸하다가 해가 저물어 거처하는 집으로 돌아왔다.⁶⁷⁾

위의 몇 대목은 사대부가 전쟁을 만나 어떻게 몰락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정경운은 정유재란 이후 전라도 지역에서 피난 생활을 하면서 갖은 고초를 당한다. 전쟁으로 인한 가난과 기아는 그로 하여금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게 했고 사대부로서의 최소한의 품위마저 상실케 했다. 때로는 떠돌이 소금장수로, 때로는 동냥을 하는 걸인으로 전락하였기 때문이다. 위의 자료는 그 가운데 일부로, 그가 걸인으로 전락하는 과정과 당시의 참담한 마음을 기록한 것이다. 결식에 대하여 ①에서는 ‘나의 마음이 어떠하겠는가’라고 했고, ②에서는 ‘시장에서 매를 맞는 것 같다’라고 했고, ③에서는 ‘거처하는 집으로 돌아왔다’라고 했다. 서서히 적응해 가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정경운이 자신의 몰락을 여과 없이 보여줌으로써 당대의 험난한 상황을 매우 효과적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IV. 요약과 남은 문제들

우리는 상황에 따라 반응한다. 작가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특별한 상황이 구비되지 않을 때 인간은 자신의 생활을 영위하면서 그의 생애적 감성을 사물을 통해 표출한다. 여기서 인류의 보편 감성이 발현된다. 근대가 민족과 민중을 중심으로 이해되어 왔던 점을 고려할 때, 그동안 우리의 생활과 일상은 외면되지 않을 수 없었다. 나아가 역사적

65) 鄭慶雲, 『孤臺日錄』, 1597년 12월 28일 조.

66) 鄭慶雲, 『孤臺日錄』, 1598년 4월 10일 조.

67) 鄭慶雲, 『孤臺日錄』, 1598년 4월 13일 조.

상황에 따른 문학적 반응이 비판의식으로 드러나지 않을 때, 그 작가는 현실 인식의 부족으로 비판받기도 했다. 그러나 인간의 생활이 특수한 역사적 상황과 관계없이 지속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근대중심주의에 입각한 우리 문학사 읽기는 적지 않은 문제를 노출시킨다. 본 논의는 바로 이를 인식하면서 진행된 것이다.

전란의 충격을 영남을 중심으로 따진 것은 특수한 경험이라는 역사적 상황과 영남으로 그 공간을 한정하기 위한 조처다. 임란 이후 영남학파는 이이와 성혼을 영수로 한 기호학과와 대칭을 이루면서 우리 사상사에 주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낙동강을 그 중심에 두고, 강우지역에서는 남명학파가 춘추대의정신에 입각하여 실천을 강조하였고, 강좌지역에서는 퇴계학파를 중심으로 주리설에 바탕한 강고한 영남의 도학정신을 성립시켰다. 그리고 낙동강 연안을 의미하는 강안지역에서는 한강학파를 중심으로 실용주의적 학문을 전개하였다. 특히 사상사적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華夷論에 입각한 문명의식은 영남학파의 사상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였다.

인간의 감성은 주로 사물과 접촉하면서 발생된다. 문학은 사물에 대한 감응과 그 형상을 의미한다. 자아와 사물의 교응 관계를 기준으로 할 때, 감성은 ‘이상’과 ‘현실’, ‘이념’과 ‘실제’라는 두 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상과 이념이 우세한 도학 감성, 이상과 실체가 우세한 낭만 감성, 실제와 현실이 우세한 생활 감성, 이념과 현실이 우세한 사회 감성이라는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감성의 유형들이 전형성을 확보하기도 하나, 고정되어 불변하는 것은 아니다. 감성은 언제나 출렁거리는 물과 같아 다른 사물과 만나면 복합성을 지니며 새롭게 구성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기서 전란 이후 영남학파의 사상적 경향과 감성이 어떻게 접촉되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이것은 본고의 2장과 3장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전란의 와중에 낭만 감성과 생활 감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도학 감성과 사회 감성이 강화된다고 단순화 시킬 수도 있겠지만, 이는 본격적으로 다시 논의해야 할 중

요한 시빃거리이다. 그러나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강우지역의 춘추대의 정신과 사회 감성, 강좌지역의 주리적 전통과 도학 감성, 강안지역의 실용주의적 학문경향과 생활 감성은 서로 친연성을 갖는다. 그리고 낭만 감성은 인간이 지닌 보편 정서로 고유의 자기 영역을 확보하면서도, 도학과 사회와 생활 감성과 무관하게 작품으로 형상화되었다.

이상의 논의를 기반으로 우리는 무엇을 새롭게 모색할 수 있는가. 이를 몇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보자. 첫째, 역사적 상황과 문학적 대응의 불일치에 대한 문제이다. 임병양란을 거치면서 조선은 혼돈 속으로 빠져들어갔다. 이러한 혼돈을 막기 위하여 주자학은 더욱 강고화되어 가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 이에 동요하며 사상사적 각성이 새롭게 일어나기도 했다. 즉, 영남지역에서는 퇴계학과를 중심으로 주리적 전통이 더욱 강화되면서도, 남명학과는 현실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현실주의적 입장을 취하였던 것이다. 사정이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을 중시하는 생활 감성이나, 인간의 보편정서인 낭만 감성은 문학창작의 주요 동인이 되었다. 다음 작품을 보자.

禪牕雨後倍虛明	비온 뒤의 禪牕은 갑절이나 虛明한데
選勝多端不可名	좋은 경치 하도 많아 이름 대지 못하겠네
園蝶學周飛栩栩	동산의 나비는 장주를 배워 훨훨 날고
杜鵑悲蜀怨聲聲	두견새는 촉을 슬퍼하여 소리마다 원한일세
雲歸萬壑遙山近	일만 구름 구름 걷혀 먼 산이 가깝고
月滿層臺伏魅驚	층층대에 달 밝으니 도깨비가 놀라네
暮暮朝朝隨見見	저녁마다 아침마다 보이고 보이는 것
盡輸尖筆助詩情	붓 끝으로 다 보내 詩情을 도와주네 ⁶⁸⁾

이주의 <雲捲千山眼界平>이라는 작품이다. 이주는 정구와 장현광의 문인으로 임란 뒤에 태어나 병자호란을 겪으며 산 인물이다. 텅 비어 있

68) 李緇, 『學稼齋集』 권2, <雲捲千山眼界平>

으면서도 밝은 ‘禪窓’, 장주의 꿈을 배워 동산 위를 나는 ‘나비’를 적극 수용하고 있으니, 주리적 전통이나 춘추대의정신이 감지되지 않는다.⁶⁹⁾ 오히려 불교와 도교를 받아들여 시대가 달라졌음을 보였고, 사물에 촉발된 ‘詩情’으로 낭만 감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영남 지역의 작가들에게서 자주 보게 된다. 생활 소사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를 작품화한 생활 감성도 마찬가지다.⁷⁰⁾ 이와 같이 역사적 상황과 문학적 반응의 불일치에 대하여 우리는 깊은 관심을 갖고 더욱 깊게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감성 유형의 복합성 문제에 대해서다. 본고에서 제시한 감성은 넷으로 유형화 하였다. 도학 감성, 낭만 감성, 생활 감성, 사회 감성이 그것이다. 이들 감성은 각각 전형적인 작품이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인간의 감성이 어느 하나로 고정화될 수 없듯이, 이를 기반으로 한 작품 역시 서로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즉, ‘도학 감성과 낭만 감성’, ‘낭만 감성과 생활 감성’, ‘생활 감성과 사회 감성’, ‘사회 감성과 도학 감성’, ‘도학 감성과 생활 감성’, ‘낭만 감성과 사회 감성’ 등과 같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자료를 보자.

영남의 문인들은 소식이 적벽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주로 낙동강을 중심으로 낭만 감성을 촉발시켰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낙동강이라는 명칭이 부여하는 ‘洛意識’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이러한 의식은 伊洛의 정주학을 연원으로 하여 정몽주와 이황 등을 거쳐 영남으로 이어지는 도맥이 선유를 하는 그들에게로 계승되고 있다는 자부심의 결과이기도 했다. 이러한 자부심은 문인들에게 있어 도학 감성이 내적으로 작동한 결과임은 물론이다. 낙강사회에는 사회 감성도 아울러 나타나고 있었다. 낙동강은 임진왜란 등 고난의 경험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⁷¹⁾

69) 이에 대해서는 정우락, 「학가재 이주의 사상경향과 일상으로서의 문학」, 『대동한문학』 65, 대동한문화회, 2020을 참조할 수 있다.

70) 생활 소사에 대한 관심과 일상의 형상은 정우락의 「虛齋 林汝松 文學의 주제와 그 의의」(『남명학연구』 62,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2019)와 「寒居 崔后大의 文學世界, 그 日常의 形象에 관하여」(『퇴계학과 한국문화』 31,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02)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71) 정우락, 「낙동강과 그 연안지역의 공간 감성과 문학적 소통」, 『한국한문학연구』 53,

낙동강 江上에서 개최되는 낙강시회는 이규보 시대부터 시작하여 19세기 후반까지 거의 700년 동안 총 51회에 걸쳐 이루어졌다.⁷²⁾ 특히 171년 간의 작품집인 『壬戌泛月錄』과 135년 간의 작품집인 『洪判官韻』에는 낭만 감성, 도학 감성, 사회 감성이 복합적으로 드러난다. 이것은 낙동강을 중심으로 창작되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또한 시회가 사대부 생활을 중요한 한 부면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이는 생활 감성의 영역에도 들어온다. 중양절에 실시되었던 범국회 등도 마찬가지이다. 황준량이 “이슬 맺힌 황국을 따서, 향기로운 백옥 같은 막걸리 기울이네. 늦가을에 멀리서 온 손님 맞아, 세한의 사귄 맺고자 하네.”⁷³⁾라고 한 것처럼 중양절과 逢別의 생활 감성이 함께하고 있다. 나아가, 傲霜孤節이라는 국화가 갖는 이념성 등으로 충분히 확장될 소지가 있음도 물론이다.

셋째, 감성의 유형과 觀物理論의 상관성 문제이다. 유가의 관물이론은 기본적으로 『대학』의 ‘格物致知’에 기반하고 있지만, 이것은 자아와 사물의 관계성 속에서 문학이론으로 발전한다. 자아와 사물의 관계는 바로 景物과 情志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자아와 사물 사이에는 ‘자아-사물-개념’이라는 사물인식의 삼각구도가 성립되므로, 개념의 내용에 따라 觀物察理의 이념적 인식, 觀物察世의 역사적 인식, 觀物察形의 즉물적 인식으로 나뉘어진다.⁷⁴⁾ 이러한 세 가지의 인식방법론은 관물이론의 기반인 바, 도학 감성과 이념적 인식, 사회 감성과 역사적 인식, 낭만 감성과 즉물적 인식이 서로 맞물리는 지점이 있다. 그 예로 다음 작품을 보자.

昨夜風霜動遠郊 어젯밤 바람과 서리가 먼 교외를 흔들더니
千林萬樹一時凋 많은 숲 수많은 나무들 일시에 시들었네

한국한문학회, 2014, 189-190쪽.

72)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은 권태을 역, 『국역 낙강범월시』, 아세아문화사, 2007을 참조하기 바란다.

73) 黃俊良, 『錦溪集·外集』 권6, <暮秋泛菊, 送驪史朴希立>, “露滴黃金菊, 香傾白玉醪. 殊秋逢遠客, 要結歲寒交.”

74) 정우락, 「16세기 사림파의 사물관과 문학정신」, 『남명학파의 문학적 상상력』, 역락, 2009 참조.

籬邊只有英英菊 울타리 가엔 단지 아름다운 국화 있어
獨立含香不自搖 홀로 서서 향기를 머금고 스스로 흔들리지 않네⁷⁵⁾

趙任道(澗松, 1585-1664)의 <秋日詠菊>이다. 이 시는 ‘서정적 자아-국화-불변하는 향기’라는 사물인식의 삼각구도 속에서 이해될 수 있고, ‘英英菊’와 ‘千林萬樹’, ‘不自搖’와 ‘一時凋’가 서로 대칭되면서 관물찰리의 이념적 인식이 강조되고 있음을 본다. 여기서 보이는 국화가 지니고 있는 불변성은 도학의 항구성과 접속되면서 자연스럽게 도학 감성을 표출하고 있음을 발견한다. 이것은 崔岌(簡易, 1539-1612)이 仁慧라는 승려에서 시를 써서 주면서, “나는 지금 시들어가는 국화를 보고 있소만, 스님은 아마도 지는 단풍을 대하고 계시겠지.”⁷⁶⁾라고 할 때 드러나는 국화에 대한 인식과 전혀 다르다. 이처럼 감성의 유형과 관물이론은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부분이 있어, 이를 더욱 정치하게 다룰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감성 유형에 따른 문화적 확장 문제이다. 사실 본고에서 제시한 네 가지의 서로 다른 감성은 모두가 문화적으로 확장이 가능하다. 도학 감성, 낭만 감성, 생활 감성, 사회 감성은 모두가 일정한 공간을 갖고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유명인의 생활 현장이나 전쟁 등 특정한 전적지의 경우,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와 관련한 작품들이 다량 축적되기도 한다. 본고에서도 잠시 언급하였듯이 도학 감성과 낭만 감성을 기반으로 문화적 확장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특기할 만하다. 구국원림을 경영하는 구국 문화와 8경 등 특별한 경관을 재구성한 집경문화가 그것이다. 그 한 예를 들어보자.

- ① 門巖九曲: 畫巖, 鵝巖, 東山, 毅訥, 水永谷, 道山, 蠶頭, 門巖, 春嶺
② 可庵八景: 釋迦曉鐘, 卓峯落霞, 馬山晴煙, 箕谷暮雲, 遠川晚松, 舞岷翠嵐, 大跟積雪, 圓通霽月

75) 趙任道, 『澗松續集』 권1, <秋日詠菊>

76) 崔岌, 『簡易集』 권8, <仁慧卷付天緝還>, “我正看衰菊, 公應對落楓.”

앞의 문암구곡은 蔡準道(石門, 1834-1904)가 팔공산 동화천 상류 일대의 계류를 중심으로 설정한 것이고, 뒤의 가암팔경은 경북 상주시 화서면에 소재한 全翼壽(1615-1683)의 가암을 중심으로 洪汝河(木齋, 1620-1674)가 설정한 것이다. 구곡은 오곡이나 칠곡으로 줄어들기도 하고 13곡으로 늘어나기도 하는데, 거의 홀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線’이 중심이고, 팔경은 4경에서 20경 이상으로 다양한데, 거의 짝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點’이 중심이다.⁷⁷⁾ 이같이 선과 점, 혹은 홀수와 짝수가 음양론에 입각해 상호 교호 관계를 유지하며 산수문화의 체계를 이룬다.⁷⁸⁾ 그리고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데서 알 수 있듯이 구곡에는 본성을 회복하는 도학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면, 팔경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아름다운 경관을 낭만적으로 형상화하는 데 주력한다. 이러한 구곡과 팔경으로 구성되는 문화체계 속에는 본고에서 제시한 도학 감성과 낭만 감성이 중요하게 작동하는 바, 이에 대한 종합적 연구가 요청된다.

전통 지식인들은 일상과 생활을 존중하면서 문학활동을 수행했다. 이 때문에 전란 등 특수한 경험이 있을 때도 그들은 문학활동을 그만두지 않았다. 위기의 상황에도 일상적인 생활을 그만둘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이 때문에 험난한 역사적 상황과는 전혀 다른 낭만 감성이나 도학 감성이 작품에 표출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몇 가지 사실로 그 작가를 재단할 수는 없다. 역사적 상황과 괴리가 있어 보이는 감성이 오히려 현실 대응을 위한 어떤 충전의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앞서 제시한 몇 가지의 남은 문제와 함께 우리가 더욱 진지하게 탐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77)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정우락, 「조선시대 선비들의 풍류방식과 문화공간 만들기」, 『퇴계학논집』 15, 영남퇴계학연구원, 2014를 참조할 수 있다.

78) 성주와 김천에 걸쳐 있는 武屹九曲 속에 58景이 있는 것처럼 曲中景을 구성하기도 하고, 상주의 愚谷 20景 가운데 빼어난 곳 아홉 곳을 설정하여 愚山九曲을 구성하기도 한다. 이처럼 곡과 경은 상호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복합적인 문화경관을 탄생시킬 수 있다.

※ 이 논문은 2020년 11월 10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0년 11월 19일부터 12월 3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0년 12월 4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詩經』

郭再祐, 『忘憂集』

金 垠, 『溪巖日錄』

金誠一, 『鶴峯集』

金昌翁, 『三淵集』

柳時藩, 『沙月堂集』

孫起陽, 『聲漠集』

孫起陽, 『聲漠集』

孫處訥, 『慕堂集』

宋翊, 『桐溪續集』

柳成龍, 『西厓集』

尹善道, 『孤山遺稿』

尹 鉉, 『菊磎集』

李德懋, 『靑莊館全書』

李 穰, 『星湖僿說』

李玄逸, 『葛庵集』

李滉, <陶山十二曲>

李紱, 『學稼齋集』

張顯光, 『旅軒集』

鄭經世, 『愚伏別集』

鄭慶雲, 『孤臺日錄』

丁若鏞, 『與猶堂全書』

鄭 蘊, 『桐溪續集』

鄭 蘊, 『東溪集』

鄭 琢, 『藥圃續集』

鄭泰鎬 編, 『龍山泛菊會錄』(木活字本, 1931)

鄭必達, 『八松集』

曹 植, 『南冥集』

趙任道, 『澗松續集』
曹好益, 『芝山集』
朱 熹, 『中庸章句集注』
崔 昱, 『簡易集』
黃俊良, 『錦溪集·外集』

- 권태을 역, 『국역 낙강범월시』, 아세아문화사, 2007.
- 김석희, 「存齋 魏伯珪의 생활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 노재현, 「한국 구곡문화 연구의 성과와 전망-구곡원림의 전국 분포와 설곡 특성을 중심으로-」, 『동아시아의 구곡문화와 강원 콜로키움 발표자료집』, 춘천박물관, 2020.
- 박홍식, 「이현일의 인물과 학문 사상」, 『영남학파의 연구』 경상북도, 1998.
- 손유진, 「『壬戌泛月錄』에 나타난 空間 認識의 樣相과 意味」,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안유경, 「갈암 이현일의 성리학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 윤성호, 「선비의 日課 공부: 『일용지결』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사학』 41, 한국교육사학회, 2019.
- 윤호진, 「서정 한시의 의미 표출 양상에 관한 연구-의미표출양상에 있어서 경물지향과 정감지향의 두 축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 이수건, 『영남학파의 형성과 전개』, 일조각, 1995.
- 장기근, 「생활시인 두보의 본령」,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 정우락, 「16세기 사림파의 사물관과 문학정신」, 『남명학파의 문학적 상상력』, 역락, 2009.
- 정우락, 「江岸學과 高靈 儒學에 대한 試論」, 『퇴계학과 유교문화』 43,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08.
- 정우락, 「낙동강과 그 연안지역의 공간 감성과 문학적 소통」, 『한국한문학연구』 53, 한국한문학회, 2014.
- 정우락, 「일상의 문학과 문학의 일상-영남의 중가문화를 중심으로」, 『유교사상문화연구』 80, 한국유교학회, 2020.
- 정우락, 「조선시대 영남 선비들의 산수유람과 지향의식」, 『남명학』 19, 남명학연

- 구원, 2014.
- 정우락, 「주세붕의 백운동 구상, 아름다움과 강함의 이중주」, 『소수서원·병산서원』,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9.
- 정우락, 「태촌 고상안의 현실인식과 그 문학적 대응」, 『동양한문학연구』 45, 동양한문학회, 2016.
- 정우락, 「학가재 이주의 사상경향과 일상으로서의 문학」, 『대동한문학』 65, 대동한문학회, 2020.
- 정우락, 「寒居 崔后大의 文學世界, 그 日常의 形象에 관하여」, 『퇴계학과 한국문화』 31,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02.
- 정우락, 「虛齋 林汝松 文學의 주제와 그 의의」, 『남명학연구』 62,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2019.
- 정우락, 「『중용』이 구암 이정희의 문학에 미친 영향」, 『동방한문학』 25, 동방한문학회, 2003.
- 정우락, 『영남을 넘어, 상주 우복 정경세 종가』, 예문서원, 2013.
- 최은주, 「조선시대 영남대로의 공간 감성과 문학적 의미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 최은주, 「조선시대 일기 자료의 실상과 가치」, 『대동한문학』 30, 대동한문학회, 2009.
- 홍원식, 「영남 유학과 ‘낙중학」」, 『한국학논집』 40,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0.
- 황위주, 「「士夫日課」를 통해 본 선비의 하루 日常」, 『퇴계학논집』 15, 영남퇴계학연구원, 2014.

Abstract

Ideological Trends and Emotional Types of Yeongnam Intellectuals after Imjinwaeran

Jwong, Woo-lak

This study set out to examine the emotions as the grounds of literary creation and their types as well as the ideological trends of Yeongnam intellectuals after Imjinwaeran while perceiving the flow in the history of literature and ideology. It also aimed to discuss their actual works broadly according to the types of emotions, building a logical ground to demonstrate that "historical situations" surrounding authors might not match their "literary reactions." At the same time, the study made an attempt at understanding anew the flow in the history of literature during the latter part of Joseon when the history of ideology interconnected with that of literature after the war.

Literature signifies one's responses to a thing and their forms. Based on the criterion of interactive relations between an ego and a thing, emotions can be understood in two axes of "ideal" and "reality" and "idea" and "truth." Emotions can be classified into four types including Taoist emotions in which ideal and idea are predominant, romantic emotions in which ideal and truth are predominant, life emotions in which truth and reality are predominant, and social emotions in which idea and reality are predominant. These types of emotions may secure their typicality, but they are not fixed and unchangeable at all.

During a war, Taoist and social emotions are further reinforced while romantic and life emotions are maintained. In the case of Yeongnam, however, there is affinity between the Chunchu cause spirit and social emotions in the Gangwoo area as the base of Nammyeong school, between Ju-Ri tradition and Taoist emotions in the Gangjiwa area as the base of Toigye School, and the pragmatic tendency and life emotions in the Gangan area as the base of Hangang School. Romantic emotions were embodied in works with nothing to do with Taoist, social, and life emotions while claiming their unique domain as universal human emotions.

keywords :

Imjinwaeran, Yeongnam, types of emotions, Taoist emotions, romantic emotions, life emotions, social emotions, Chunchu cause spirit, Ju-Ri tradition, pragmatism